

文學碩士 學位論文

羅末麗初 慶州 出土 寺刹銘 平기와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柳 煥 星

2007年 6月

羅末麗初 慶州 出土 寺刹銘 平기와 研究

指導教授 金 昌 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6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柳 煥 星

柳煥星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7年 6月

## <목 차>

I. 머리말.....	1
II. 사찰명 평기와의 소개.....	5
1. 사천왕사 관련 사찰명 평기와.....	8
2. 갑산사 관련 사찰명 평기와.....	15
3. 영묘사 관련 사찰명 평기와.....	20
4. 창림사 관련 사찰명 평기와.....	24
5. 안계사 관련 사찰명 평기와.....	26
6. 기타.....	27
III. 사찰명 평기와의 유형분류.....	29
1. 분류기준.....	29
2. 유형분류.....	29
IV. 사찰명 평기와의 유형별 편년과 단계설정 및 특징.....	35
1. 각 유형별 편년검토.....	36
2. 단계설정과 단계별 특징.....	45
V. 사찰명 평기와의 변천과정과 그 원인 .....	47
1. 사찰명 평기와의 변천과정.....	47
2. 사찰명 평기와의 변천원인.....	49
VI. 맺음말.....	51
참고문헌.....	53
Abstract.....	56

## 〈그림 목차〉

그림 1. 사천왕사지 출토 「四天」 「王寺」 명 [사천(암1)] 암키와편.....	9
그림 2. 불국사 경내 출토 「四天」 「王寺」 명 [사천(암2)] 암키와편.....	10
그림 3. 사천왕사지 출토 「四天」 「王寺」 명 [사천(암3)] 암키와편.....	11
그림 4. 사천왕사지 출토 「四天」 「王寺」 명 [사천(암4)] 암키와편.....	11
그림 5. 사천왕사지 출토 「四天王寺己巳年重修瓦」 명 [사천(암5)] 암키와편.....	12
그림 6. 사천왕사지 출토 「天王」 「寺右」 명 [사천(암6)] 암키와편.....	13
그림 7. 사천왕사지 출토 「四天」 「王寺」 명 [사천(수1)] 수키와편.....	14
그림 8. 갑산사지 안강 육통리 와요지 출토 「甲山寺」 명 [갑산(암1)] 암키와편..	16
그림 9. 갑산사지 출토 「岬山寺」 명 [갑산(암2)] 암키와편.....	16
그림 10. 갑산사지 출토 「岬山寺~」 명 [갑산(암3)] 암키와편.....	17
그림 11. 갑산사지 출토 「岬山寺」 명 [갑산(암4)] 암키와편.....	18
그림 12. 갑산사지 출토 「~山寺」 명 [갑산(암5)] 암키와편.....	18
그림 13. 갑산사지 출토 「甲山寺庚」 「申八月日」 명 [갑산(암6)] 암키와편.....	18
그림 14. 갑산사지 출토 「~寺瓦草」 명 [갑산(암7)] 암키와편.....	19
그림 15. 갑산사지 출토 「岬山寺」 명 [갑산(수1)] 수키와편.....	19
그림 16. (傳)홍륜사 출토 「靈廟」 「之寺」 명 [영묘(암1)] 암키와편.....	21
그림 17. (傳)홍륜사 황룡사 동편 SIE地區 출토 「靈廟」 「之寺」, 「承全」 명 [영 묘(암2)] 암키와편.....	22
그림 18. (傳)홍륜사 신문왕릉 동남방 와요지 출토 「大令妙寺造瓦」 명 [영묘(암 3)] 암키와편.....	22
그림 19. 국당리 출토 「大令妙寺造瓦」 명 [영묘(수1)] 수키와편.....	23
그림 20. 창림사지 출토 「昌林寺瓦草」 명 [창림(암1)] 암키와편.....	24
그림 21. 천관사지 출토 「昌林寺」 명 [창림(수1)] 수키와편.....	25
그림 22. 창림사지 출토 「昌林」 명 [창림(수2)] 수키와편.....	25
그림 23. 안계사지 출토 「安溪寺」 명 [안계(암1)] 암키와편.....	26
그림 24. 안계사지 출토 「安溪寺」 명 [안계(수1)] 수키와편.....	27
그림 25. 천북 왕신리 밀곡사지 출토 「~瓦 密谷之寺~」 명 [밀곡(암1)] 암키와편..	27
그림 26. 보문사지 출토 「普門寺」 명 [보문(암1)] 암키와편.....	28
그림 27. 석장사지 출토 「王滿寺金堂開造草」 명 [왕만(암1)] 암키와편.....	28
그림 28. I 유형 사찰명 평기와.....	30
그림 29. II 유형 사찰명 평기와.....	31
그림 30. III 유형 사찰명 평기와.....	33
그림 31. IV 유형 사찰명 평기와.....	34
그림 32. 경주박물관 구수부지 우물 출토 「南宮」 「之印」 명 수키와편.....	37
그림 33. 부소산성 출토 「會昌七」 「年丁卯」 「年末印」 명 수키와편.....	37
그림 34. 포천 반월산성 출토 「馬忽受解空口草」 명 암키와편.....	38

그림 35. 불국사 경내 출토 매납유물.....41  
 그림 36. 미륵사지 출토 「太平興國五年庚辰」 「彌勒藪龍泉房瓦草」 명 암키와편.....43  
 그림 37. 정림사지 출토 「大平八年戊辰」 「定林寺大藏富草」 명 암키와편.....43

<표 목차>

표 1. 경주 출토 사찰명 평기와 현황표.....5  
 표 2. 사천왕사 관련 사찰명 평기와 속성표.....14  
 표 3. 갑산사 관련 사찰명 평기와 속성표.....20  
 표 4. 영묘사 관련 사찰명 평기와 속성표.....23  
 표 5. 창림사 관련 사찰명 평기와 속성표.....25  
 표 6. 안계사 관련 사찰명 평기와 속성표.....27  
 표 7. 기타 사찰명 평기와 속성표.....29  
 표 8. 사찰명 평기와 유형분류표.....35  
 표 9. 사찰명 평기와 단계설정표.....46  
 표 10. 사찰명 명문 평기와 변천과정표.....48

## I. 머리말

명문기와는 문헌기록이나 유적 발굴에서 알 수 없는 제작년대, 제작처, 제작 동기 등의 역사적 사실의 단면을 보여주며 유적 및 유물의 편년설정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sup>1)</sup> 특히, 사찰명을 잃어버린 폐사지의 이름을 찾게 해주는 동시에<sup>2)</sup> 문헌에 나타나는 해당 사찰명과 관련지어서 그 사찰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단편을 제공해 준다.<sup>3)</sup>

이러한 명문기와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확인된다. 명문의 내용은 연호명, 간지명, 사찰명, 지명, 인명 등이 확인된다. 고구려에서는 수막새에 문자가 새겨진 예가 있는데 「太寧四年~」(326년)명 명문기와, 「己丑~」(329년)명 명문기와 등의 연호 간지명 명문기와가 확인된다. 백제시대에서는 「大通」(527년)명 명문기와, 원형의 도장이 찍힌 명문기와 등이 확인된다. 통일신라시대에서도 「儀鳳二年」(677년)명 명문기와, 「儀鳳」「四年」「皆土」(679년)명 명문기와, 「在城」명 명문기와 등이 확인된다. 그리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면 연호명, 간지명, 사찰명, 지명, 인명 등의 복합된 문장이 등장하므로 금석문 자료로서도 손색이 없다. 그 중에서도 사찰명이 기와에 새겨진 것이 다수 확인되는데 현재 경주에서 49종류(사찰명으로는 22종류)의 사찰명이 새겨진 기와가 확인되고<sup>4)</sup> 앞으로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sup>5)</sup> 다양한 명문기와 내용 중 경주에서 사찰명이 새겨진 기와는 그 출토량이 가장 많고 사명을 비정하거나 사지의 성격을 밝히는 데 좋은 자료이다.

명문기와는 지금까지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크게 지역적으로 따질 때 2가지로 구분된다. 한반도 내에서 통시적으로 본 것과 문화재 조사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본 것이다. 전자의 경우, 제작기법, 문양, 명문의 분석 등의 내용을 설명할 때 명문기와를 언급하였고,<sup>6)</sup> 후자의 경우, 지역 내에서 문화재

1) 金炳熙, 『安城 奉業寺址 出土 高麗前期 銘文기와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2001, p.53.

2) 경주에서는 갑산사, 사제사, 영묘사, 보문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이도학, 「抱川 半月山城 出土 ‘고구려 기와’ 銘文의 再檢討」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2006, 서경, p.517.

4) 필자가 현재까지 보고서 도록 발굴자료 등의 자료 수집에 의해서 파악된 수량이다.

5) 朴方龍, 『新羅 都城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8, pp.139~145.에는 경주에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181곳의 사찰이 확인되지만 사찰명이 새겨진 기와는 22곳 밖에 되지 않는다.

6) 高正龍, 「軒瓦の現れた文字 -朝鮮時代銘文瓦の系譜-」 『古代文化』 18, 古代學協會, 2004.

金昌鎬, 「後三國時代の 기와에 나타난 麗·濟의 地名」 『韓國中世史의 諸問題』, 2001.

徐五善, 『韓國平瓦文樣의 時代的 變遷에 대한 研究』, 忠南大學校大學院 史學科碩士學位請求論文, 1985.

조사 한 유적을 통해 명문기와에 대한 소개 및 편년, 역사적 위치 등을 설명할 때 명문기와를 언급하였다.<sup>7)</sup> 여기서는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사찰명이 새겨진 기와와 관계된 연구성과를 살펴보고자한다.

高正龍은<sup>8)</sup> 조선시대 문자기와의 계보를 찾는 과정에서 각 시대별로 문자기와의 분류하였다. 낙랑, 삼국시대, 신라통일기에서 고려시대전기, 고려후기로 나누어서 보았다. 고려후기를 기준으로 문자기와의 의미가 이전에는 주로 의장화한 것이 많은데 비해, 고려후기부터 연호, 간지, 인명이 이전시기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보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문자기와는 고려후기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 시대별로 문자기와의 분류하고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좋은 지표를 제시하였으나 막새에 한정되어 있다. 통일신라시대 문자기와의 살펴보면 주로 평기와에 문자가 새겨진 것이 많은데 이는 고려시대 문자기와 제작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막새에 새겨진 문자를 기준으로 통일신라와 고려후기를 같이 보는 것 보다 평기와까지 포괄해서 문자기와의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김병희는<sup>9)</sup> 안성 봉업사지 출토 명문기와를 통해 고려 전기 평기와의 제작

李仁淑, 『統一新羅~朝鮮前期 평기와 製作技法의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2004.

차순철, 「官 字銘 銘文瓦의 使用處 檢討」 『慶州文化研究』 第5輯, 慶州大學校文化財研究所, 2003.

- 7) 姜鍾元, 「錦山 栢嶺山城 出土 銘文瓦 檢討」 『百濟研究』 第39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00.  
 高敬姬, 『新羅 月地 出土 在銘 遺物에 대한 銘文 研究』, 東亞大學校 碩士學位請求論文, 1993.  
 구문희, 「武珍古城 出土 銘文資料와 新羅統一期 武州」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河炫綱教授定年紀念論叢, 2000.  
 龜田修一, 「扶余“大唐”銘軒丸瓦の語みもの」 『古代文化』 18, 古代學協會, 2004.  
 金炳熙, 『安城 奉業寺址 出土 高麗前期 銘文기와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2001.  
 金昌鎬, 「新羅 기와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 『講座 美術史』 15號.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0.  
 -----, 「慶州출토 朝鮮初 銘文瓦에 대하여」 『民族文化論叢』 第 23輯, 2001.  
 吉井秀夫, 「新羅의 文字瓦-光州廣域市武珍古誠採集瓦を中心として-」 『朝鮮의 古瓦を考ふる』, 帝塚山考古學研究所, 1996.  
 吉井秀夫, 「扶蘇山城出土“會昌七年”銘文字瓦のめぐつて」 『古代文化』 11, 古代學協會, 2004.  
 박홍국, 「경주지방에서 출토된 문자명와」 『전국대학생 학술연구발표 논문집』 5, 고려대학교학술단, 1980.  
 -----, 「경주 안계사지와 포항 연화사지의 銘文瓦」 『新羅學研究』 제3집, 위덕대학교부설신라학연구소, 1999.  
 -----, 「瓦塼資料를 통한 靈廟寺址와 興輪寺址의 位置 比定」 『興輪寺의 綜合的 研究』 第 20輯,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2.  
 심상욱, 「백제 印刻瓦의 출현과 변천과정 검토」 『百濟文化研究』 第34輯,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2005.  
 松井忠春 외, 「韓國 慶州地域寺院所用瓦の研究」 『青丘學術論叢』 4,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1994.  
 李タウン, 「百濟五部名刻印瓦について」 『古文化談叢』 第43集, 1999.  
 田中俊明, 「廣州船里出土文字瓦銘文의 解釋と意義」 『古代文化』 18, 古代學協會, 2004.  
 竹谷俊夫, 「慶州出土의 銘文瓦二種」 『天理參考館報』 第18, 天理大學出版部, 2005.  
 清水信行, 「開泰寺址 出土 銘文瓦에 대한 一考察」, 『百濟研究』 第28輯,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1998.

8) 高正龍, 위의 논문, 2004.

기법의 변천과 봉업사지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명문기와를 연호명, 간지명, 기타 명문기와로 분류하였고 평기와의 분석을 통해 4기로 나누어 편년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려시대 사찰에서 출토된 명문기와 비교를 통해 제작시기 설명하였다. 명문기와를 통해 봉업사지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했다는 것은 명문기와 연구에 있어 좋은 지표를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이인숙의 지적처럼 타날문양의 경우 고려시대말까지 어골문의 타날문양이 확인되기 때문에 봉업사지 주변지역의 기와제작에 있어 공간적인 특징을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르나 편년을 설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하다.

서오선<sup>10)</sup> 한국의 평와문양을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로 분류하였고, 명문(年號銘, 地銘, 寺銘, ‘官’銘)과 공반되어 나타나는 타날문양을 근거자료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찰명 기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사찰명과 공반되는 문양, 명문내용에 관한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 내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범위에서는 타당할 지도 모르나, 경주라는 부분적인 범위 내에서는 공간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인숙은<sup>11)</sup> 연호명 기와와 그것과 관련된 평기와에서 보이는 제작기법의 속성을 통해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평기와 제작기법 변천을 설명하였다. 이는 절대연대를 가지는 평기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각 시기별 평기와의 편년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기와연구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편년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명문내용에 관한 분석과 구조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

植山茂, 吉井秀夫, 菱田哲郎 등은<sup>12)</sup> 갑산사지에서 출토된 문자기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문자기와 뿐만 아니라 갑산사지에서 채집된 막새류, 평기와, 토기 등도 함께 다루고 편년을 통해 갑산사의 존속시기를 7세기에서 10-11세기로 바라보았다. 그중에서 사찰명 명문기와의 경우 8종으로 나누고 문자의 특징과 제작기술(요면에 보이는 연철흔, 타날판)을 근거로 10세기에서 11세기로 편년하고 있다. 이러한 사찰명 명문기와의 의미는 와공집단의 변화와 갑산사에 있어서 중수, 재건 등의 사업이 행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는 사찰명 명문기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 의미까지 파악하여 좋은 지표를 제공하였지만 갑산사지에 한정되어 있다.

9) 金炳熙, 위의 논문, 2001.

10) 徐五善, 위의 논문, 1985.

11) 李仁淑, 위의 논문, 2004.

12) 松井忠春 외, 위의 논문, 1994.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명문기와 연구는 명문기와의 소개, 년호명 기와의 제작기법에 의한 평기와의 편년, 명문기와의 수급관계, 조사된 유적의 역사적 위치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경주지역 내에서 명문기와자료에 의한 연구도 있었지만 자료가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자료에 의한 소개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 같다. 또, 신라 혹은 통일신라시대로 시대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박홍국,<sup>13)</sup> 上原眞人,<sup>14)</sup> 高正龍<sup>15)</sup>에 의해서 언급된 부분인데 경주에서 신라기와와 고려기와의 구별에 대해서는 이전연구에서 모두 경주가 신라의 왕경으로 파악하고 대부분의 출토유물을 신라의 것으로 판단하는데 오는 혼란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경주의 고려시대 기와연구는 거의 공백상태이며 편년설정 또한 많은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경주지역 내에서 명문기와 자료는 문화재 조사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편년을 하는데 더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의 일환으로서 명문기와 중 경주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확인되는 사찰명이 새겨진 기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이러한 시점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번쯤 정리하는 차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찰명이 새겨진 기와의 편년과 의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과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기와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나말여초 사찰명 명문기와의 연구를 택하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경우, 경주지역 내 시기별로 사찰의 존속년대를 추정할 수 있고, 덧붙여서 명문기와를 통한 사회상을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통일신라시대 말에서 고려시대 초의 나말여초 과도기적인 시기를 말하고<sup>16)</sup> 공간적으로는 현재 행정구역으로의 경주에서 출토<sup>17)</sup>된 곳이다. 대상은 위의 시기로 판단되는 24종 27점의 사찰명이 표기된 평기와<sup>18)</sup>로 하였다. 이러한 사찰명 평기와는 기존의 문화재조사보고서, 전시도록 등과 실견을 통해서 파악하였다.

13) 朴洪國, 『三國末~統一初期 新羅瓦搏에 대한 一考察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그 出土瓦搏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6.

14) 上原眞人, 「十一 十二世紀瓦當文様の源流(上 下)」 『古代文化』 32-5 6, 1980.

15) 松井忠春 외, 위 논문, 1994.

16) 여기서의 나말여초라고 하는 것은 후삼국시대를 포함하는 9세기 중엽에서 13세기까지를 일컫는다.

17) 사찰명 평기와의 경우는 발굴 조사한 것보다 지표조사에 의해 수습된 것이 다수이다. 여기서는 지표 수습과 발굴조사 수습을 한 것으로 포괄해서 “출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8) 평기와에 대해서는 용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여기서는 암기와 수키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24종 27점(사찰명 8종류)의 사찰명 평기와의 대해서 소개하고 명문의 특징을 기준으로 유사성이 있는 것을 각각의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별 내에서 명문으로 본 기준(명문의 새김방법, 명문구조, 명문의 내용)과 기와속성에서 본 기준(타날판 길이, 타날문양, 수키와의 형태 및 단면형태)을 통해 시기를 추정한 후 관련유물을 통해 편년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단계별로 파악하고 사찰명 평기와의 기와속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러한 변화과정이 생긴 사회적 배경에 대해 추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나말여초의 명문기와 특징을 파악하는데 조금이나마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 II. 사찰명 평기와의 소개

현재 경주 지역 내에서 확인되는 사찰명 명문기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9종류(사찰명 22종류) 정도가 확인된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서 같이 사천왕사 관련 명문기와 9종류, 갑산사 관련 명문기와 8종류, 황룡사 관련 명문기와 6종류순으로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 경주 출토 사찰명 명문기와 현황표>

번호	사찰명	명문기와				출토지	종류	비고
		암키와	수키와	암막새	수막새			
1	사천왕사 관련 명문기와	「四天王寺」기와①, 「四天王寺」기와②, 「四天王寺」기와③, 「四天王寺」기와④, 「四天王~」기와⑤, 「四天王寺己巳年重修瓦」기와⑥, 「天王寺右」기와⑦.	「四天王寺」기와①, 「四天王~」기와②			사천왕사지, 불국사경내, 안암지, 분황사	9	
2	갑산사 관련 명문기와	「甲山寺」기와①, 「岬山寺」기와②, 「岬山寺」기와③, 「岬山寺」기와④, 「~山寺」기와⑤, 「甲山寺庚」 「申八月日」기와⑥, 「~寺瓦草」기와⑦, 「~山~」기와⑧.	「岬山寺」기와①			갑산사지, 안강육통리와요지	8	「~山寺」암키와⑤와 「岬山寺」수키와①은 셋트관계
3	황룡사 관련 명문기와	「皇龍寺」기와①, 「皇籠寺」기와②, 「皇龍」기와③, 「皇籠」기와④, 「皇龍」기와⑤, 「皇籠」기와⑥.				황룡사, 보리사지, 포석정서북쪽폐사지, 황룡사동편 SIE1 지구, 월정교, 용장리비파곡제2사지	6	

4	영묘사 관련 명문기와	「靈廟」「之寺」기와①, 「靈廟」 「之寺」, 「承全」기와②, 「大舍妙 寺造瓦」기와③.	「大舍妙寺造瓦」 기와①			傳흥륜사 지, 황룡 사 동 편 SIE1 지 구, 신문 왕릉 동 남방와요 지, 국당 리(傳흥 륜사지주 변)	3	「大舍妙寺造瓦」 암 키와③와 「大舍妙寺 造瓦」 수키와①은 셋트관계
5	창림사 관련 명문기와	「昌林寺瓦草」기와①	「昌林寺」기와①, 「昌林」기와②			창림사 지, 천관 사지	3	
6	사제사 관련 명문 기와			「四祭寺」막새①, 「四祭寺」막새②	「四祭」막새①	사 제 사 지, 경주 남산리	2	「四祭寺」막새①, 「四祭寺」암막새② 과 「四祭」수막새① 은 셋트관계
7	황복사 관련 명문기와	「皇福寺」기와①, 「王福」기와②				남산 동 록	2	
8	천주사 관련 명문기와	「~天柱~」기와①			「天柱」막새①	천주사지	2	
9	동사 관련 명문기와	「東寺」기와①	「東寺」기와①			굴불사지	1	「東寺」암키와①와 「東寺」수키와①은 셋트관계
10	안계사 관련 명문기와	「安溪寺」기와①	「安溪寺」기와①			안계사지	1	「安溪寺」암키와① 와 「安溪寺」수키와 ①은 셋트관계
11	정 만 지 사 관련 명문 기와 <sup>19)</sup>				「正万之寺」막 새①	구황동 배반동가 스매설지	1	
12	인정지사 관련 명문기와				「因井之寺」막 새①	일정교지 주변	1	
13	밀 꼭 지 사 관련 명문기와	「~瓦 密谷之寺」기와①				밀꼭사	1	
14	보문사 관련 명문기와	「普門寺」기와①				보문사지	1	

15	삼량사 관련 명문기와	「三郎」기와①				삼량사지	1	
16	석불사 관련 명문기와	「石佛」기와①				석굴암	1	
17	왕만사 관련 명문기와	「王滿寺金堂開造草」기와①				석장사지	1	
18	용장사 관련 명문기와	「元統二年甲戌三月日葺長寺」기와 ①				남산용장 사지, 남 산지암곡 제3사지.	1	1334년
19	원원사 관련 명문기와	「遠願~」기와①				원원사	1	
20	천룡사 관련 명문기와	「~龍寺」기와①				천룡사	1	
21	포석사 관련 명문기와	「砲石」기와①				포석정모 형전시관 부지	1	
22	황룡사 관련 명문기와	「~龍寺大殿」기와①				덕동리 황룡사지	1	

여기서는 나말여초로 판단되는 사찰명 평기과를 선정하여 가장 많은 종류의 사찰명 평기과가 확인되는 것을 순서로 언급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각각의 사찰명 평기과 내에서 부호화해서 간략화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같은 출토지에서 확인된 명문기과의 용어반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먼저 사찰명을 우선 표기하고, 기과의 종류에서 암키와를 “암”으로, 수키와를 “수”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종류에 있어 숫자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四天」 「王寺」명 암키와편의 경우, 사천(암)으로 명명하였다.

19) 현재 이 명문기과의 경우에는 ‘万正之寺’ 명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명문의 배열이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막새의 명문을 上→右→左→下로 읽는 순서는 그 예가 없다. 따라서 「因井之寺」명 수막새와 같이 ‘正’ 자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읽어야 타당하다고 본다.

## 1. 사천왕사 관련 사찰명 평가와

사천왕사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문무왕 9년(669년)과 문무왕 10년(670년)에 호국의 목적으로 절이 세워졌다.<sup>20)</sup> 그리고 『三國遺事』에서는 사천왕사를 “채색 비단으로 절을 짓고 풀로 오방신상을 만들고”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高麗史』에서는 문종 28년(1074년) “사천왕사에서 27일 동안 문두루도량을 열었다”는 기록도 있다.<sup>21)</sup> 현재 2006년 4월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착수하여 서탑지의 기단구조, 녹유사천왕상벽전의 봉안위치, 서익랑지의 확인 등 조사성과를 얻었다.<sup>22)</sup> 그 과정에서 다수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었고, 발굴조사 이전에 지표상에서도 명문기와가 수습되었다. 그리고 불국사정보박물관예정부지, 안압지, 분황사 등에서도 「四天」 「王寺」 명문기와가 수습되었다.

사천왕사 관련 명문기와는 9종류가 있는데<sup>23)</sup>, 경주에서 사찰명 명문기와가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이 확인되는 예이다. 지금까지 四天王寺 관련 사찰명 문자기와는 막새에서 확인되지 않고 암키와와 수키와에 있다. 현재, 암키와는 7종류가 확인되고, 수키와는 2종류가 확인된다. 여기서는 암키와 5점, 수키와 1점 등 총 6점을 언급하고자하며 사찰명, 사찰명 뒤의 다른 단어가 부가된 것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 1) 「四天」 「王寺」 명 암키와 [사천(암1)]<sup>24)</sup> (그림1)

20)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19年條.

21) 《高麗史》 권9.

22) 崔장미 車順喆, 「2006년도 사천왕사지 발굴조사의 성과와 의의」 『新羅史學報』 8, 新羅史學會, 2006.

23) 慶州大學校博物館, 『慶州佛國寺境內聖寶博物館建立豫定敷地發掘調查報告書』, 2006, p.100, 도면 46-1, 도판77-1.

高敬姬, 위의 논문, 1993, p.94, 圖 4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芬皇寺 發掘調查報告書 I(遺物圖版)』, 2005, p.97, 925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06.

國立慶州博物館,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新羅瓦磚』, 2000, p.363, NO.1174.

國立慶州博物館, 『文字로 본 新羅』, 학연문화사, 2002, p.113, NO.229.

국립청주박물관 청주인쇄출판박람회조직위원회, 『한국 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2000, p.133, NO. 187.

金東賢 외, 『新羅의 기와』, 1976, NO.29.

노명호 외, 『韓國古代中世 地方制度의 諸問題』, 집문당, 2004, p.429.

朴洪國, 위의 논문, 1980, p.105, 圖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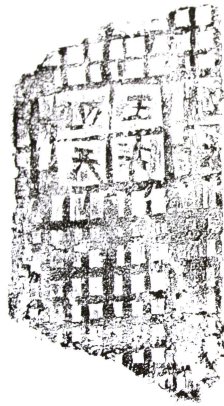
임상택 외,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명문기와』, 서울대학교박물관, 2002, p.45, 도면8-3.

井內古文化研究室, 『朝鮮瓦磚圖譜』 VII 總說, 1977, p.63, p.219.

朝鮮總督府,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查報告』 第一冊, 1924, 圖版 第22-1 第22-2.

2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6.

사천왕사지에서 발굴조사 중 출토된 것이고, 동체부와 측면이 남아 있는 암키와편이다. 색조의 경우, 표면은 흑회색을 띠고 깨어진 단면속심은 다량의 백색 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凸面에서는 4분할 된 방곽 내 2자씩 종서로 「四天」 「王寺」가 좌서양각 되었다. 측면쪽에는 와도흔적에 의해 「四天」子만 확인된다. 명문이 새겨진 정방형의 방곽을 중심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타날문양은 방격문이다.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음각된 방격자문양의 장판타날판으로 凸面을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凹面에서는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되고 측면 가까이에는 눈테흔도 확인된다. 측면에는 요면에서 철면으로 와도흔이 있다.



확인된다. 명문이 새겨진 정방형의 방곽을 중심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타날문양은 방격문이다.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음각된 방격자문양의 장판타날판으로 凸面을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凹面에서는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되고 측면 가까이에는 눈테흔도 확인된다. 측면에는 요면에서 철면으로 와도흔이 있다.

그림1. 사천왕사지 출토 「四天」 「王寺」 [사천(암1)] 암키와편

## 2) 「四天」 「王寺」 명 암키와 [사천(암2)] (그림2)

이 사찰명 암키와의 경우 사천왕사지뿐만 아니라<sup>25)</sup>, 불국사정보박물관예정부지<sup>26)</sup>, 안압지<sup>27)</sup>, 분황사<sup>28)</sup> 등에서 확인된다. 여기서는 가장 완형에 가깝게 남아 있는 불국사 정보박물관 예정부지에서 출토된 명문기와를 언급하고자 한다. 발굴조사 과정 중 “옛길2”에서 출토된 「四天」 「王寺」명 암키와이다. 5개체로 파손된 암키와편을 복원하여 길이와 너비를 알 수 있다. 색조의 경우, 표면은 암청회색을 띠며 깨어진 단면속심은 1~5mm 내외의 암청회색, 회백색의 세사립이 확인되는 명청회색이다. 凸面에는 정방형의 방곽 내 2자씩 우측에서 좌측으로 「四天」 「王寺」가 확인되는데, 종서로 우서양각되어 있다. 명문이 새겨진 정방형의 방곽을 중심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타날문양은 사격자문이고 그 안에는 부분적으로 원형의 돌기가 있다. 기와제작 과정 때 「四

2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위의 보고서, 2006.

國立慶州博物館,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위의 도록, 2000, p.363, NO. 1174.

金東賢 외, 위의 책, 1976, NO. 29.

林洪國, 위의 논문, 1980, p.105, 圖 17-3.

26) 慶州大學校博物館, 위의 보고서, 2006, p.100. 도면46-1, 도판77-1.

27) 高敬姬, 위의 논문, 1993, p.94. 圖 45.

28)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위의 보고서, 2005, p.97, 925번.

天」「王寺」명이 음각된 사격자문양의 장판타날판으로 凸面을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협단부는 6.1cm정도 횡방향 물손질로 인해 타날문양이 지워진 상태이다. 凹面에서는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되고 측면 가까이에서는 눈에흔도 확인된다. 광단부쪽에는 횡방향의 띠상의 흔적이 있고 협단부는 단부를 조정 한 상태이다. 측면에는 양쪽 모두 凹面에서 凸面으로 와도흔이 있다.

(길이: 39cm, 너비: 33.3cm, 두께: 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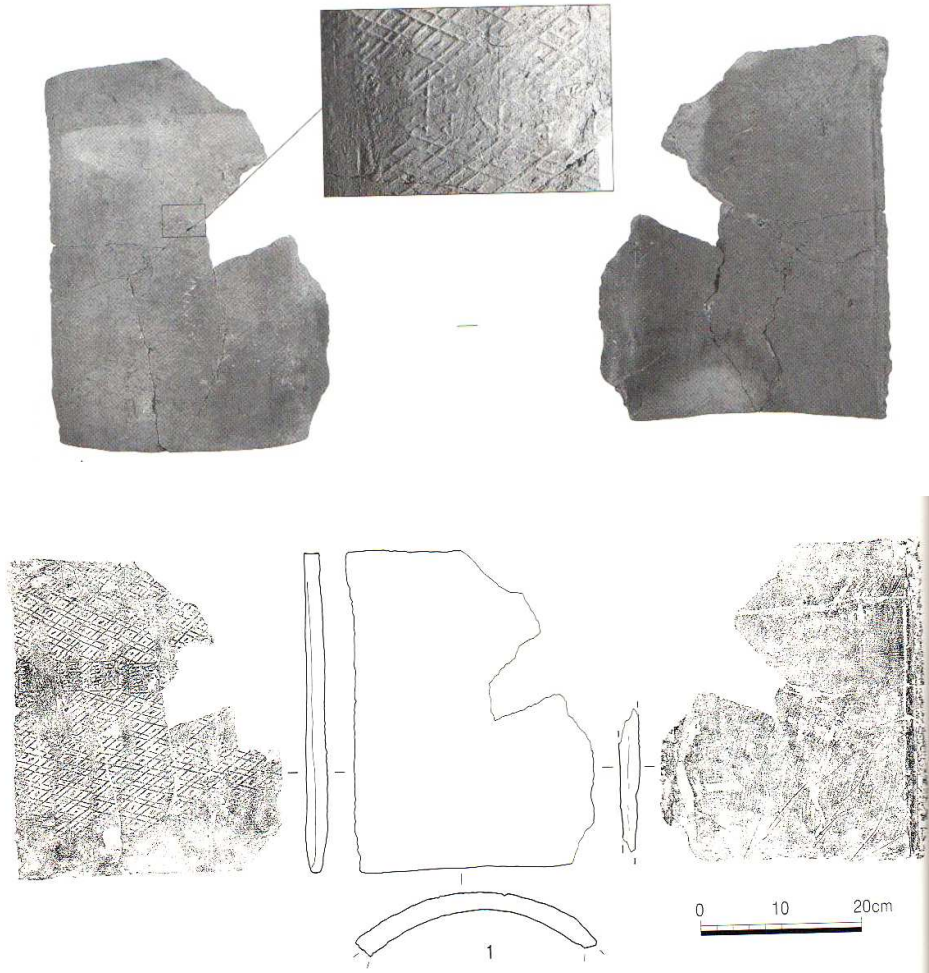


그림 2. 불국사 성보박물관예정부지 출토 「四天」「王寺」 명 [사천(암2)] 암키와

### 3) 「四天」「王寺」 명 암키와 [사천(암3)]<sup>29)</sup> (그림3)

29) 國立慶州博物館, 위의 도록, 2002, p.113, NO. 229.

이와 같은 同形の 기와가 朴洪國, 위의 논문, 1980, p.105, 圖 17-4.



그림3. 사천왕사지 출토 「四天」 「王寺」 명  
[사천(암3)] 암키와

광단부와 측면의 일부가 남아 있는 「四天」 「王寺」 명 암키와편이다. 색조의 경우, 표면은 흑청색을 띠고 있다. 凸面에서는 4분할 된 이중 방곽 내 2자씩 우측에서 좌측으로 「四天」 「王寺」가 우서양각되었다. 명문이 새겨진 정방형의 방곽을 중심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타날문양은 사격자문이고 그 안에는 부분적으로 원형의 돌기가 있다. 광단부쪽의 일부는 회전물손질에 의해 일부 타날문양이 지워진 상태이다.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음각된 사격자문양의 장판타날판으로 凸面을 타날하였다. 현재 과실로 인해서 3번 정도 타날된 것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23cm, 잔존너비: 13.2cm, 두께: 1.9cm)

4) 「四天」 「王寺」 명 암키와 [사천 (암4)]<sup>30)</sup> (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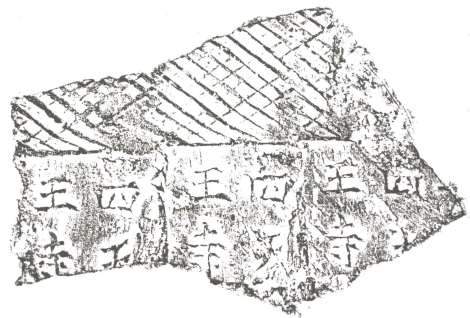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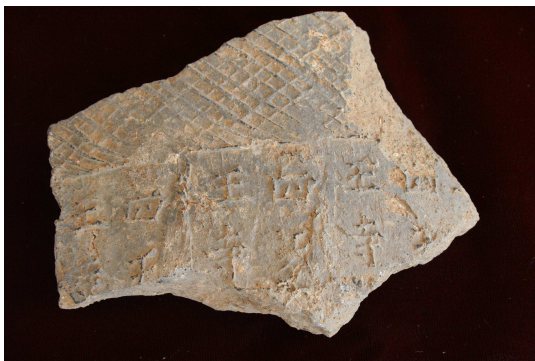


그림4. 사천왕사지 출토 「四天」 「王寺」 명 [사천(암4)] 암키와

사천왕사지에서 발굴조사 과정 중 출토되었고, 동체부와 측면의 일부가 남아 있는 「四天」 「王寺」 명 암키와편이다. 색조의 경우, 표면은 흑청색을 띠고 있다. 凸面에서는 정방형의 방곽 내 2자씩 우측에서 좌측으로 「四天」 「王

3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위의 보고서, 2006.

寺」가 우서양각 되었다. 명문이 새겨진 방곽을 중심으로 윗부분은 타날문양이 사격자문이다.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음각된 사격자문의 장판타날판으로 凸面을 타날하였다. 현재 파실로 인해서 3번 타날된 것으로 확인된다.

### 5) 「四天王寺己巳年重修瓦」 명 암키와 [사천(암5)] (그림5)

사천왕사지에서 발굴조사 과정 중 출토되었고, 동체부와 측면의 일부가 남아 있는 「四天王寺己巳年重」 명 암키와편이다.<sup>31)</sup> 색조의 경우, 표면이 흑황색을 띠고 있다. 凸面에서는 장방형의 방곽 내 「四天王寺己巳年重」 명이 종서로 좌서양각되어 있다. ‘重’자 밑으로는 기와의 파실로 인해 명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주대학교박물관 소장품 중 사천왕사지에서 지표 수습된 ‘重修瓦’ 명 암키와편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四天王寺己巳年重修瓦」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32)</sup> 명문이 새겨진 장방형의 방곽을 중심으로 좌우측에는 세선문의 타날문양이 확인된다.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새겨진 세선문의 장판타날판으로 철면을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면에는 포목흔적이 확인되고 측면에는 요면에서 철면으로 와도흔이 있다. 이 명문기와의 경우, 사천왕사 중수와 관련된 정보를 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잔존길이: 15.6cm, 잔존너비: 8.3cm, 두께: 2.4cm)



그림5. 사천왕사지 출토 「四天王寺己巳年重修瓦」 명 [사천(암5)] 암키와

3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위의 보고서, 2006.

32) 노명호 외, 위의 책, 2004, p.429.

## 6) 「天王」「寺右」명 암키와 [사천(암6)]<sup>33)</sup> (그림6)

사천왕사지에서 수습된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는 「天王」「寺右」명 암키와 편이다. 색조의 경우 연회황색 계통으로 소량의 잔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凸面에서는 정방형의 이중 방곽 내 2자씩 좌측에서 우측으로 「天王」「寺右」가 우서양각 되었다. 명문이 새겨진 정방형의 방곽을 중심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타날문양은 사격자문이고 그 안에는 부분적으로 원형의 돌기가 있다. 타날문양은 위에서 언급한 [사천(암3)]과 같은 문양이지만 명문이 다르다.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음각된 사격자문양의 장판타날판으로 凸面을 타날하였다. 현재 파실로 인하여 3번 타날한 것이 확인된다. 凹面에는 포목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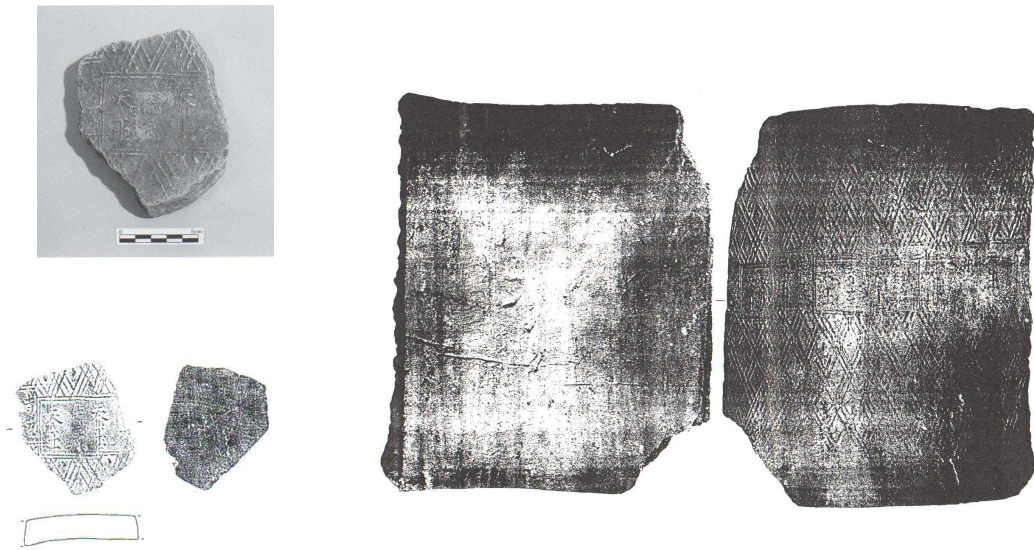


그림6. 사천왕사지 출토 「天王」「寺右」명 [사천(암6)] 암키와

## 7) 「四天」「王寺」명 수키와 [사천(수1)]<sup>34)</sup> (그림7)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는 「四天」「王寺」명 토수기

33) 임상택 외, 위의 보고서, 2002, p.45, 도면8-3.

이와 같은 同形の 기와가 金東賢 외, 위의 책, 1976, NO. 27.

井內古文化研究室, 위의 도록, 1977, p.63, 219번.

34) 國立慶州博物館,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위의 도록, 2000, p. 363, NO. 1175.

金東賢 외, 위의 책, 1976, NO. 31.

井內古文化研究室, 위의 도록, 1977, p.62, 218.

국립청주박물관 청주인쇄출판박람회조직위원회, 위의 도록, 2000, p.133, NO. 187.

와편이다. 색조의 경우, 표면은 흑청색을 띠고 있다. 凸面에서는 4분할 된 방곽 내 2자씩 좌측에서 우측으로 「四天」 「王寺」가 우서양각 되어 있다. 명문이 새겨진 정방형의 방곽을 중심으로 사격자문의 타날문양이 확인된다. 수키와의 형태에 있어서 梯형이고 타날된 단면의 형태는 각이 져 있다. 기와제작과정 때 사격자문양의 장판타날판으로 凸面을 타날한 후, 「四天」 「王寺」명도장으로 찍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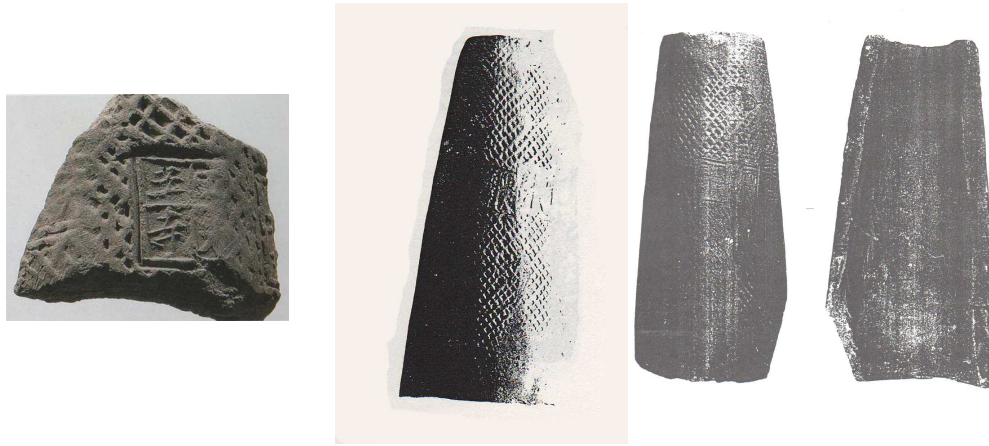


그림7. 사천왕사지 출토 「四天」 「王寺」명 [사천(수1)] 수키와

<표2. 사천왕사 관련 명문기와 속성표>

번호	부호	명문	출토지	명문 순서	명문 시문형태	명문 새김방법	명문 내용	타날 판 길이	타날 문양	소장처
1	사천(암1)	四天王寺	사천왕사지	↓ →	좌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	장판	격자문 (단독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	사천(암2)	四天王寺	사천왕사지 불국사 안압지 분황사	← ↓	우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	장판	사격자문 (단독문)	경주대박물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박물관
3	사천(암3)	四天王寺	사천왕사지	← ↓	우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	장판	사격자문 (단독문)	국립경주박물관
4	사천(암4)	四天王寺	사천왕사지	← ↓	우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	장판	사격자문 (단독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5	사천(암5)	四天王寺 己巳年重修瓦	사천왕사지	↓	좌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a	장판	선문 (단독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대박물관

6	사천(암6)	天王寺右	사천왕사지	↓→	우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a	장판	사격자문 (단독문)	서울대박물관
7	사천(수1)	四天王寺	사천왕사지	←↓	우서양각	도장 압인	사찰명	장판	사격자문 (단독문)	국립경주박물관

## 2. 갑산사 관련 사찰명 평기와

갑산사는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의 문헌기록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경주 시가지로부터 북쪽으로 떨어진 안강농공단지의 남쪽에 있으며 여기서는 암막새, 수막새, 명문기와, 평기와, 토기편, 전돌 등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다. 그 중 문자기와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갑산사 관련 명문기와는 8종류이다.<sup>35)</sup>

지금까지 사찰명 명문기와는 암키와 8종, 수키와 1종 등 총 8종이 확인되었다. 갑산사 관련 사찰명 명문기와도 사천왕사 관련 사찰명 명문기와와 같이 막새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암키와 7점, 수키와 1점 총 8점의 사찰명 기와를 사찰명, 사찰명과 간지 등 이외의 다른 명문이 새겨진 것 순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 1) 「甲山寺」명 암키와 [갑산(암1)]<sup>36)</sup> (그림8)

갑산사지에서 수습된, 광단면과 동체부가 남아 있는 암키와편이다. 색조의 경우, 표면은 청회색을 띠고 있다. 凸面에서는 방곽 내 종서로 「甲山寺」명이 우서양각 되었다. 명문이 새겨진 장방형의 방곽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타날문양이 종선문이다.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새겨진 종선문양의 장판타날판으로 凸面을 타날하였다. 현재 과실로 인하여 3번 타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부에는 횡방향의 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길이:21.3cm, 잔존너비:12.3cm, 두께: 2.3cm)

이와 같은 명문기와의가 안강 육통리 와요지에서 수습되었다.<sup>37)</sup> 현재 동체부 일부만 남아있는 암키와편이다. 두께는 2.2cm이고, 색조의 경우 표면은 회백색을 띠고 깨어진 단면의 속심은 회색과 백색의 세사립이 함유되어 있다. 凸面의 명문은 「甲山寺」명으로 판단되는데 ‘甲’자와 ‘寺’자의 경우 글자의 획이 일부분 확인되고 ‘山’자의 경우, 글자체와 좌측에서 확인되는 종선문이 위의 명문기와와 같다. 이 기와의 경우 갑산사와 육통리 와요지간의 기와의 공

35) 松井忠春 외, 위의 논문, 1994, p.28.에서는 명문기와의를 14종류로 분류하였다.

36) 國立慶州博物館,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2000, 『新羅瓦塼』, p.367, NO. 1188.  
松井忠春 외, 위의 논문, 1994, p.26. 第12圖-1; 文字瓦1.

37) 2004년 1월 31일 경주대박물관 답사 과정에서 수습하였다.

급관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그림8. 갑산사지(左) 안강 옥동리 와요지(右) 출토 「甲山寺」 명 [갑산(암1)] 암키와

## 2) 「岬山寺」 명 암키와 [갑산(암2)]<sup>38)</sup> (그림9)

갑산사지에서 수습된, 광단면과 양측면의 너비를 알 수 있는 암키와편이다. 凸面에서는 방곽 내 중서로 「岬山寺」 명이 우서양각 되었다. 명문이 새겨진 방곽 윗부분에는 3개의 횡선문이 확인되고 그 위에는 종선문이 있다.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새겨진 종선문양의 장판타날판으로 凸面을 9회 정도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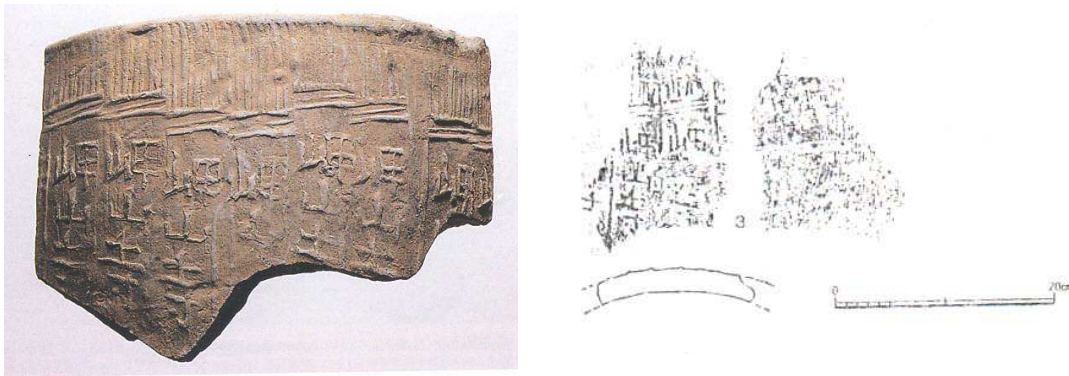


그림9. 갑산사지 출토 「岬山寺」 명 [갑산(암2)] 암키와

이와 같은 명문기와 중 다른 하나는<sup>39)</sup> 凹面に 포목흔적과 사절흔적이 확인

38) 國立慶州博物館,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위의 도록, 2000, p.367, NO.1188.  
松井忠春 외, 위의 논문, 1994, p.26. 第12圖-1; 文字瓦1.

되고 포목의 단부에서 약 10cm 쯤에 연철흔적이 있다.

### 3) 「岬山寺~」 명 암키와 [갑산(암3)]<sup>40)</sup> (그림10)

갑산사지에서 수습된, 광단면과 동체의 일부가 남아 있는 암키와편이다. 색조의 경우, 표면은 흑회색이고 내부는 담황색을 띤다. 凸面에서는 종서로 「岬山寺」 명이 좌서양각되어 있다. ‘岬’자의 위로는 화문의 문양대와 아래로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있고 ‘寺’자의 아래로 명문이 확인되는데 판독하기 어렵다.<sup>41)</sup>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새겨진 복합문양의 장판 타날판으로 凸面을 4회 정도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0. 갑산사지 출토 「岬山寺~」 명 [갑산(암3)] 암키와

### 4) 「岬山寺」 명 암키와 [갑산(암4)]<sup>42)</sup> (그림11)

갑산사지에서 수습되었고 동체부의 일부가 남아있는 암키와이다. 凸面에서는 종서로 대형<sup>43)</sup>의 「岬山寺」 명이 우서양각된 것이 확인된다. 남아있는 편으로 보면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새겨진 장판타날판으로 凸面을 3회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39) 松井忠春 외, 위의 논문, 1994, p.26. 第12圖-3; 文字瓦3.

40) 松井忠春 외, 위의 논문, 1994, p.26. 第12圖-4; 文字瓦4.

41) [갑산(암3)] 아랫부분이 잘 남아 있는 명문기와(國立慶州博物館,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2000, 위의 도록, p. 367, NO. 1190.)가 있다.

42) 朴洪國, 위의 논문, 1980, p.100. 圖10.

松井忠春 외, 위의 논문, 1994, p.26. 第12圖-8; 文字瓦8.

43) 여기서 말하는 대형의 기준은 글자의 폭이 2cm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림11. 갑산사지 출토 「岬寺」  
명 [갑산(암4)] 암키와



그림12. 갑산사지 출토  
「~山寺」명 [갑산(암5)]  
암키와

5) 「~山寺」명 암키와 [갑산(암5)]<sup>44)</sup> (그림12)

갑산사지에서 수습되었고 동체부의 일부 편이 남아있는 암키와이다. 凸面에서는 종서로 ‘山寺’ 명이 우서양각 되어 있다. 현재 편으로 남아 있어 명문의 전문과 타날문양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寺’자의 아랫부분에 격자문으로 판단되는 부분의 일부가 확인된다.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새겨진 사격자문양의 장판타날판으로 凸面을 2회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께: 2.1cm)

6) 「甲山寺庚」 「申八月日」명 암키와 [갑산(암6)]<sup>45)</sup> (그림13)



그림13. 갑산사지 출토 「甲山寺庚」  
「申八月日」명 [갑산(암6)] 암키와

갑산사지에서 수습되었고 동체부의 일부 편이 남아있는 암키와이다. 凸面에서는 종서로 「申八月日」명이 좌서양각 되어 있다. 명문의 우측으로 희미하게 명문이 확인되는 것 같지만 현재 편으로 남아 있어 명문의 전문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기보고된 자료에 의하면<sup>46)</sup> 「甲山寺庚」 「申八月日」명의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sup>47)</sup> 그렇다면 현재 명문의 우측에는 「甲山寺庚」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기와제작 과정

44) 松井忠春 외, 위의 논문, 1994, p.26. 第12圖-6; 文字瓦6.

45) 松井忠春 외, 위의 논문, 1994, p.26. 第12圖-5; 文字瓦5.

46) 松井忠春 외, 위의 논문, 1994, p.27.에서는 예전에 보고된 藤島亥治郎, 「朝鮮出土の古瓦に」 『夢殿』 第八十冊에 의하면 “甲山寺庚申八月日” 명의 자료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

47) 松井忠春 외, 위의 논문, 1994, p.27.

때 명문이 새겨진 장판타날판으로 철면을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께: 1.8cm)

7) 「~寺瓦草」명 암키와 [갑산(암7)]<sup>48)</sup> (그림14)



그림14. 갑산사지 출토 「~寺瓦草」명[갑산(암7)] 암키와

갑산사지에서 수습되었고 동체부의 일부가 남아있는 암키와이다. 색조의 경우 표면은 회흑색을 띠며, 내부는 회백색을 띤다. 凸面에서는 타날판의 한 단위 문양이 종선으로 이분되어 있다. 우측에는 ‘田’자형의 문양을 중심으로 사격자문, 좌측에는 종서로 ‘~寺瓦草’ 우서양각된 명문과 격자문을 배치하였다. 기와제작 과정 때 복합문양의 타날문양에 명문이 새겨진 장판타날판으로 凸面을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면에서는 사절흔적이 남아 있다. (두께: 2.6cm)

8) 「岬山寺」명 수키와 [갑산(수1)]<sup>49)</sup> (그림15)



그림15. 갑산사지 출토 「岬山寺」명[갑산(수1)] 수키와

갑산사에서 수습되었고 광단부, 동체부와 양측면이 남아있는 토수키와이다. 凸面에서는 종서로 ‘岬山寺’명이 우서양각되었으며 명문의 하부에는 사격자문이 확인된다.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새겨진 사격자문의 장판타날판으로 5~6회 정도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凹面에는 사절흔적이 확인되고 양측면에는 凹面에서 凸面으로 와도흔적이 있다.

글자체와 명문하부의 타날문양으로 볼 때 [갑산(암5)]와 셋트관계로 추정된다.

(잔존길이: 35cm, 너비: 12.3cm, 두께: 2.3cm)

48) 松井忠春 외, 위의 논문, 1994, p.26. 第12圖-8; 文字瓦8.

49) 松井忠春 외, 위의 논문, 1994, p.26. 第12圖-2; 文字瓦2.

<표3. 갑산사 관련 사찰명 평기와 속성표>

번호	부호	명문	출토지	명문 순서	명문 시문형태	명문 새김방법	명문 내용	타날 판 길이	타날 문양	소장처
1	갑산(암1)	甲山寺	갑산사지 유통리와요지	↓	우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	장판	선문 (단독문)	국립경주박물관 경주대박물관
2	갑산(암2)	岬山寺	갑산사지	↓	우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	장판	선문 (단독문)	국립경주박물관
3	갑산(암3)	岬山寺~	갑산사지	↓	좌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	장판	화문+? (단독문)	국립경주박물관
4	갑산(암4)	岬山寺	갑산사지	↓	우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	장판	무문? (단독문)	
5	갑산(암5)	~山寺	갑산사지	↓	우서양각	타날판 음각	?	장판	사격자문 (단독문)	
6	갑산(암6)	甲山寺庚 申八月日	갑산사지	←↓	우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a	장판	무문 (단독문)	
7	갑산(암7)	~寺瓦草~	갑산사지	↓	우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a	장판	사격자문+ 격자문 (단독문)	
8	갑산(수1)	岬山寺	갑산사지	↓	우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	장판	사격자문 (단독문)	

### 3. 영묘사 관련 사찰명 평기와

영묘사는 『三國遺事』 아도기라조에 635년에 착공되었다는 내용과 『三國史記』 선덕왕 4년조에 635년에 이룩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영묘사의 위치비정에 관해서 논란이 있으나 현재 흥륜사를 영묘사로 보는 쪽이 우세한 것 같다.<sup>50)</sup> 이곳에서 영묘사 관련 명문기와와는 현재 총 3종류가 확인되는데 암키와 2종류, 수키와 1종류가 수습되었다. 그리고 신문왕릉 동남방 와요지에서도 암키와편이 1점이 수습되었다.

여기서는 위의 종류를 모두 언급하고자 하며 사찰명, 사찰명과 간지 이외의 다른 명문이 새겨진 것을 순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50) 國立慶州博物館,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위의 도록, 2000, p.90.

김원주, 「사적 15호 흥륜사지는 영묘사지의 잘못」 『天古』 51, 신라문화동인회, 1983, pp.3~5.

東朝 田中俊明, 『韓國の古代遺跡--新羅編』 中央公論社, 1988, pp.156~158.

朴洪國, 위의 논문, 2002 p.197.

오영훈, 『신라왕경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석사학위청구논문, 1988, pp.23~24.

田中俊明, 「慶州新羅廢寺考(1)」 『堺女子短期大學紀要』 23號, 堺女子短期大學, 1988, pp.7~11.

1) 「靈廟」 「之寺」 명 암키와<sup>51)</sup> [영묘(암1)] (그림16)

(傳)홍륜사에서 수습된 동체부와 측면이 남아 있는 암키와편이다. 색조의 경우, 표면은 흑청색을 띠고 깨어진 단면속심은 다량의 흑색과 백색 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凸面에서는 정방형의 방곽 내 2자씩 중서로 「靈廟」 「之寺」가 좌서양각 되었다. ‘靈廟’와 ‘寺’자 사이에 ‘之’ 자가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명문이 새겨진 정방형 방곽의 윗부분에는 타날문양이 중선문이다.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새겨진 중선문양의 장판타날판으로 凸面을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 있는 기와편으로 볼 때, 2번 타날한 것으로 보인다. 凹面에서는 포목흔이 확인되고 중앙부에는 기와제작 과정 때 생긴 종방향의 흔적이 확인된다. 측면에는 凹面에서 凸面으로 와도흔이 있다.

(잔존길이: 12.9cm, 잔존너비: 8.5cm, 두께: 2.1cm)



그림16. (傳)홍륜사 출토 「廟廟」 「之寺」 명 [영묘(암1)] 암키와

2) 「靈廟」 「之寺」, 「承全」 명 암키와 [영묘(암2)]<sup>52)</sup> (그림17)

(傳)홍륜사에서 수습된 동체부가 남아 있는 암키와편이다.<sup>53)</sup> 「靈廟」 「之

51) 이와 같은 명문기와는 다음과 같다.

國立慶州博物館,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위의 도록, 2000, p.302, NO.1169.

朴洪國, 위의 논문, 1980, p.104, 圖16.

朴洪國, 위의 논문, 2002, p.207~208.

52) 朴洪國, 위의 논문, 2002, p.208~209.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新羅王京 發掘調査報告書 I (遺物圖版) - 皇龍寺址 東便 SIE1地區-』學術研究叢書32, 2002, p.170, 1400번, p.352, 1400번.

53) 현재 「靈廟」 「之寺」 [영묘(암1)] 명 암키와의 경우, 완형으로 보고된 것이 없다. 그래서 「靈廟」 「之寺」 명 기와 모두 선문의 타날문양 내에서 “承全” 표기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寺」명 암키와[영묘(암1)]의 이중방곽과 선문타날 문양을 근거로 「靈廟」 「之寺」명 명문기와(영묘C1)의 아래 부분이다. 凸面の 타날된 선문 사이에는 종서로 ‘承全’이 좌서양각되어 있다. 이 명문기와의 경우 황룡사 동편 SIE1地區에서도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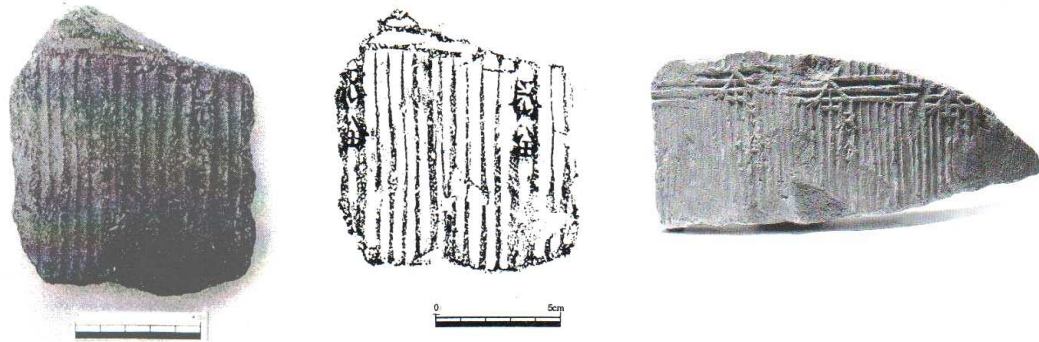


그림17. (傳)홍륜사 출토(左) 황룡사 동편 SIE1地區(右) 출토 「廟廟」 「之寺」, 「承全」명[영묘(암2)] 암키와

### 3) 「大令妙寺造瓦」명 암키와 [영묘(암3)]<sup>54)</sup> (그림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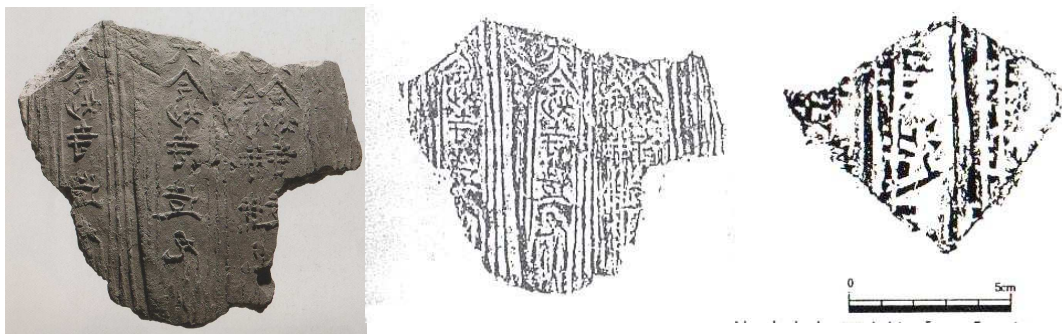


그림18. (傳)홍륜사 출토(左) 신문왕릉 동남방 와요지 출토(右) 「大令妙寺造瓦」명 (영묘 C3) 암키와

(傳)홍륜사에서 수습된 동체부가 남아 있는 암키와편이다.<sup>55)</sup> 색조의 경우, 표면은 흑회색을 띠고 있다. 凸面에서는 종서로 「大令妙寺造瓦」가 좌서양각되었다. 명문이 새겨진 주위로 선문의 타날문양이 확인된다. 현재 남아 있는 기와편으로 보면,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새겨진 선문양의 장판타날판으로

54) 國立慶州博物館,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위의 도록, 2000, p.361. NO.1168.  
朴洪國, 위의 논문, 2002, p.211, 사진13, 탁본6.

55) 신문왕릉 동남방 와요지에서 ~寺造~ 명 암키와편을 수습하였는데 명문의 글자체, 획의 기울기 등으로 「大令妙寺造瓦」기와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朴洪國, 위의 논문, 2002, p.211.

凸面을 5번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측면에는 凹面에서 凸面으로 와도흔적이 있다. 이 명문기와는 신문왕릉 동남방 와요지에서 확인되어 수급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잔존길이: 19cm, 잔존너비: 22cm, 두께: 2.8cm)

4) 大令妙寺造瓦 명 수키와 [영묘(수1)]<sup>56)</sup> (그림19)



그림19. 국당리 출토 「大令妙寺造瓦」 명 (영묘 D1) 수키와

국당리<sup>57)</sup>에서 수습된 협단부와 동체부의 일부가 남아 있는 수키와편이다. 색조의 경우, 표면은 흑회색을 띠고 있다. 凸面에서는 종서로 ‘大令~’이 좌서양각 되었다. 명문이 새겨진 윗부분에는 선문의 타날문양이 확인된다. 현재 남아 있는 기와편으로 보면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새겨진 선문양의 장판타날판으로, 凸面을 3번 정도 타날하였다. 위의 「大令廟寺造瓦」 명 암키와[영묘(암3)]에서 보이는 글자체와 타날문양으로 볼 때 셋트관계로 판단된다. (잔존길이: 14.4cm, 잔존너비: 9.7cm, 두께: 1.8cm)

<표4. 영묘사 관련 사찰명 평기와 속성표>

번호	부호	명문	출토지	명문 순서	명문 시문 형태	명문 새김방법	명문 내용	타날판 길이	타날 문양	소장처
1	영묘(암1)	靈廟之寺	傳 興륜사지	←↓	좌 서 양각	타날판 음각	사명	장판	선문 (단독문)	경주대박물관
2	영묘(암2)	靈廟之寺, 承全	傳 興륜사지 황룡사동편SIE1 地區	←↓ ↓	좌 서 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a	장판	선문 (단독문)	위덕대박물관 국립경주문화재연구 소
3	영묘(암3)	大令妙寺造瓦	傳 興륜사지 신문왕릉 동남방 와요지	↓	좌 서 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a	장판	선문 (단독문)	국립경주박물관 위덕대학교박물관
4	영묘(수1)	大令妙寺造瓦	국당리 (傳 興륜사 주변)	↓	좌 서 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a	장판	선문 (단독문)	국립경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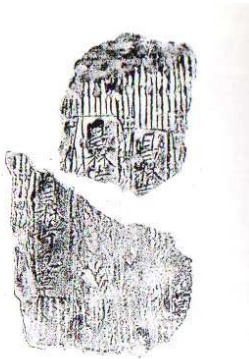
56) 國立慶州博物館,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2000, 『新羅瓦磚』, p.362, NO.1170.

57) 국당(菊堂)은 (傳)흥륜사 주변의 지명이다.

#### 4. 창림사 관련 사찰명 평기와

창림사는 서남산의 포석곡 구릉릉선의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탐지석과 범화경석 다수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탐지석을 통해 축성시기도 원성왕 7년(791)년 이전이라는 하한년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창림사 관련 명문기와<sup>58)</sup> 3종류가 있는데 창림사에서 수습된 암키와 1종류, 수키와 1종류가 있고 천관사지에서 수키와 1점이 출토되었다. 여기서는 위의 종류 모두를 언급하고자 하며 암키와 수키와 순으로 언급하고자한다.

##### 1) 「昌林寺瓦草」 명 암키와<sup>59)</sup> [창림(암1)] (그림20)



창림사에서 수습된 동체부와 광단부가 남아 있는 암키와편 2점이다. 凸面에서는 장방형의 방곽 내 중서로 「昌林寺瓦草」명이 우서양각 되었다. 명문이 새겨진 방곽의 상하부분에는 타날문양이 중선문이다.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새겨진 선문양의 장판타날판으로 凸面을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광단부의 단면쪽에는 횡방향 물손질흔적이 있다.

그림20. 창림사지 출토 「昌林寺瓦草」 명[창림(암1)] 암키와

##### 2) 「昌林寺」 명 수키와 [창림(수1)]<sup>60)</sup> (그림21)

천관사지에서 지표 수습된 동체부와 측면이 남아 있는 토수키와편이다. 색조의 경우, 표면은 회청색이고 깨어진 단면속심은 사립이 포함된 회백색을 띤다. 凸面에서는 「昌林寺」명이 우서음각되어 있고, 명문을 중심으로 선문의 타날문양이 확인된다. 수키와의 형태에 있어서 梯형이고 타날 된 단면의 형태는 약간 각이 져 있다. 기와제작 과정 때 중판 타날판으로 타날한 뒤 「昌林寺」명 도장을 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凹面에는 포목흔적이 확인되고, 측면에는 凹面에서 凸面으로 와도흔적이 있다.

58) 윤창미, 「경주남산 출토 명문와」 『慶研考古』 제4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p.5에서는 창림사지의 명문기와 종류를 4종류(昌林寺, 昌林, 昌林寺瓦草, 茶蓮院)으로 보고 있다.

59)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世界文化遺産 慶州南山』, 2002, p.86, 挿圖 60.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南山 精密學術調査報告書』, 2004, p.135, 도면34-11.

60)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 天官寺址 發掘調査報告書』, 學術研究叢書38, 2004, p.231, 圖面 95-1, p.337.寫真161-1.

(잔존길이: 16cm, 잔존너비: 13.3cm, 두께: 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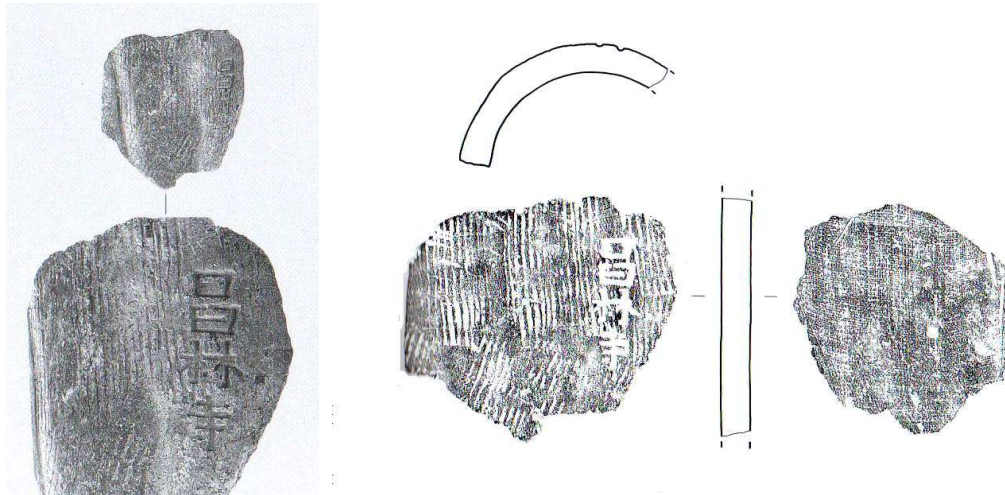


그림21. 천관사지 출토 「昌林寺」명 [창림(수1)] 수키와

3) 「昌林」명 수키와 [창림(수2)]<sup>61)</sup> (그림22)



그림22. 창림사지 출토 「昌林」명 [창림(수2)] 수키와

창림사지에서 수습된 동체부가 남아 있는 토수키와편이다. 凸面에서는 중서로 「昌林」명이 우서음각 되었다. 명문 주위로 선문의 타날문양이 확인된다. 수키와의 형태에 있어서 梯형이고 타날된 단면의 형태는 약간 각이 져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기와편을 보면 기와제작 과정 때 선문양의 중판 타날판으로 凸面을 타날한 후 ‘昌林’자를 압인한 후 ‘林’자의 끝획을 어떤 도구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길이: 20cm, 잔존너비: 17.6cm)

<표5. 창림사 관련 사찰명 평기와 속성표>

번호	부호	명문	출토지	명문 순서	명문 시문형태	명문 새김방법	명문 내용	타날판 길이	타날 문양	소장처
1	창림(암1)	昌林寺瓦草	창림사지	↓	우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a	장판	선문 (단독문)	
2	창림(수1)	昌林寺	천관사지	↓	우서음각	도장압인	사찰명	중판	선문 (단독문)	경주문화재연구소

61) 國立慶州博物館,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위의 도록, 2000, p.366, NO.1186.  
 國立慶州博物館, 위의 도록, 2002, p.114, NO.234.

3	창림(수2)	昌林	창림사지	↓	우서음각	도장압인	사찰명	중판	선문 (단독문)	국립경주박물관
---	--------	----	------	---	------	------	-----	----	-------------	---------

## 5. 안계사 관련 사찰명 평기와

안계사는 강동면 안계리 산8-4번지 적골마을 서쪽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다. 안계사 역시 문헌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8세기로 추정되는 『慶州府圖』에 의하면 안곡사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곳이 아마도 안계사일 가능성이 크다.<sup>62)</sup> 여기서는 안계사 관련 명문기와가 확인되었는데 암수키와 1종류가 있다. 위의 기와를 모두 언급하고 암수키와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安溪寺」명 암키와 [안계(암1)]<sup>63)</sup> (그림23)



그림23. 안계사지 출토  
「安溪寺」명[안계(암1)]  
암키와

안계사지에서 수습된 광단부와 동체부의 일부가 남아 있는 암키와편이다. 凸面에서는 장방형의 방곽 내 종서로 ‘安溪寺’ 명이 우서양각 되었다. ‘安’자의 경우, 계집 女변의 상부 양쪽에 점이 두 개가 찍힌 것이 특징적이다.<sup>64)</sup> 명문이 새겨진 윗부분에는 선문 내 ×문양의 타날문양이 확인된다. 현재 남아 있는 기와편을 보면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음각된 장판 타날판으로 凸面을 6회 정도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길이: 20.5cm, 잔존너비: 16.8cm)

### 2) 「安溪寺」명 수키와 [안계(수1)]<sup>65)</sup> (그림24)

안계사지에서 수습된 동체부 일부가 남아있는 수키와편이다. 색조의 경우, 표면이 적갈색을 띠고 있다. 凸面에서는 방곽 내 종서로 ‘安溪寺’ 명이 우서양각 되었다. ‘安’자의 경우, 암키와와 마찬가지로 계집 女변의 상부 양쪽에 점 두 개가 찍혀 있다. 명문의 새겨진 아랫부분에는 선문 내 ×문의 문양의 타날문양이 확인된다.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음각된 장판타날판으로 凸面을 타

62) 박홍국, 위의 논문, 1999, pp. 48~49.

63) 國立慶州博物館,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위의 도록, 2000, p.376, NO.1243.  
國立慶州博物館, 위의 도록, 2002, p.115, NO. 242.

64) 박홍국, 위의 논문, 1999, p.44.

65) 박홍국, 위의 논문, 1999, p.54, 圖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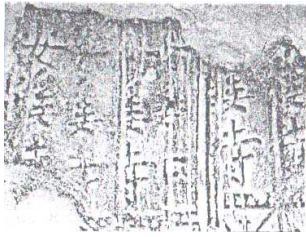


그림24. 안계사지 출토 「安溪寺」명 [안계(수1)] 수키와

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凹面에서는 포목흔적이 확인되고 凸面에서는 凹面에서 철면으로 와도흔적이 나 있다. 이 명문기와의 경우 [안계(암1)]과 타날문양, 명문의 글자체로 볼 때 셋트관계로 판단된다.  
(잔존길이: 23.5cm, 잔존너비: 13cm, 두께 2.5cm)

<표6. 안계사 관련 명문기와 속성표>

번호	부호	명문	출토지	명문 순서	명문 시문형태	명문 새김방법	명문 내용	타날판 길이	타날 문양	소장처
1	안계(암1)	安溪寺	안계사지	↓	우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	장판	선문 내 ×문 (단독문)	국립경주박물관
2	안계(수1)	安溪寺	안계사지	↓	우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	장판	선문 내 ×문 (단독문)	위덕대박물관

6. 기타

여기서의 사찰명 명문기와는 각각의 사찰명 명문기와 중에서 1점만 출토된 것을 기타로 묶은 것이다. 모두 3점의 사찰명 기와가 확인되는데 다음과 같다.

1) 「~瓦 密谷之寺~」명 암키와 [밀곡(암1)]<sup>66)</sup> (그림25)



그림25. 천북 왕신리 밀곡사지 출토 「~瓦 密谷之寺」명 [밀곡(암1)] 암키와

경주시 천북면 왕신리 밀곡사지에서 수습된 것으로 동체부의 일부가 파편으로 남아있는 암키와편이다. 凸面에서는 중서로 「~瓦 密谷之寺」명이 우서양각 되었다. ‘瓦’자와 ‘密’자 사이로 이중의 횡선이 확인된다.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음각된 장판 타날판으로 凸面을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66) 國立慶州博物館, 위의 도록, 2002, p.115, NO. 243.

2) 「普門寺」명 암키와[보문(암1)]<sup>67)</sup> (그림26)



그림26. 보문사지 출토 「普門寺」명 [보문(암1)] 암키와

보문동에 위치한 이 사지는 사역 내 연화문 당간지주, 건물지 등이 있다. 정확한 사찰명에 대한 문헌의 기록은 없으나 황룡사 찰주본기 말미에 ‘普門寺’가 언급되어 있고,<sup>68)</sup> 사찰명 명문기와도 확인되었다. 여기서는 지표수습 된 명문기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 동체부가 남아 있는 암키와편이다. 凸面에서는 장방형의 방곽 내 중서로 「普門寺」명이 좌서양각 되었다. 명문이 새겨진 상하에는 타날문양이 선문이다. 현재 남아 있는 기와편을 보면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새겨진 선

문양의 장판타날판으로 凸面을 5번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길이: 17.3cm, 잔존너비: 21cm)

3) 「王滿寺金堂開造草」명 암키와<sup>69)</sup> [왕만(암1)] (그림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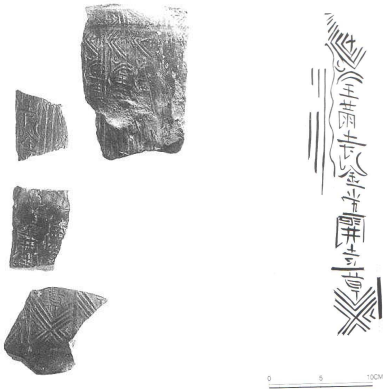


그림27. 석장사지 출토 「王滿寺金堂開造草」명 [왕만(암1)] 암키와

석장사는 옥녀봉 줄기인 해발 95m의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1986년과 1992년에 2차례에 걸쳐 발굴조사하여 사역과 규모 등을 확인되었다.<sup>70)</sup> 여기서는 탑상문진, 금동불상, 소조신장상편, 명문기와 등의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명문기와는 석장사가 아닌 다른 사찰명 명문기와가 출토된 것이 특징적이다. 여기서는 사찰명 명문기와 1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67) 國立慶州博物館, 위의 도록, 2002, p.114, NO. 235.

國立慶州博物館,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2000, 위의 도록, p.364, NO.1178.

68)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1976.

69)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錫杖寺址』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第4冊, 1994, p.237, 圖版 71, p.267, 도면38-3.

차순철, 「경주지역 평기와 수급관계에 대한 일고찰 -석장사지 출토 평기와의 중심으로-」 『新羅學研究』, 위덕대학교부설신라학연구소, 2000, p.248, 도8.

國立慶州博物館, 위의 도록, 2002, p.115, NO.239.

70)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앞의 보고서, 1994.

凸面에는 종서로 ‘王滿寺’가 좌서양각 되어 있는데 나머지 기와편을 맞추어 본 결과 「王滿寺金堂開造草」 명의 명문이 확인되었다. 명문의 주위로는 종선문과 기하학문이 복합된 타날문양이 확인된다. 기와제작 과정 때 명문이 새겨진 장관타날판으로 凸面을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명문기와의 경우,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구내사지에서 동일 한 예가 확인되었다.<sup>71)</sup>

<표7. 기타 사찰명 평기와 속성표>

번호	부호	명문	출토지	명문 순서	명문 시문형태	명문 새김방법	명문 내용	타날판 길이	와법 및 타날 문양	소장처
1	밀곡(암1)	~瓦,密谷之寺~	천북 왕신리밀곡사지	↓	좌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a	장판	무문 (단독문)	국립경주박물관
2	보문(암1)	普門寺	보문사지	↓	좌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	장판	선문 (단독문)	경주대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3	왕만(암1)	王滿寺金堂開造草	석장사지	↓	좌서양각	타날판 음각	사찰명+a	장판	종선문+마름모문 (복합문)	동국대박물관

### III. 사찰명 평기와의 유형분류

#### 1. 분류기준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언급한 사찰명 평기와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유형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사찰명 평기와의 시기를 파악하기 위한 일환이다.

여기서는 사찰명 평기와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24종 27점(사찰명 8종류)의 사찰명 명문 평기와를 대상으로 명문에서 보이는 특징 중에서 명문의 새김방법, 명문의 구조 등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고 그 후, 각 유형별안에서 타날판의 길이, 타날문양, 수키와의 타날면형태 등을 추가로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유형의 분류기준을 명문에서 보이는 특징을 통해 4개의 유형으로 나누었고, 각각의 유형 안에서 부가적으로 기와의 속성을 보았다.

#### 2. 유형분류

##### 1) I 유형(기와의 凸面에 타날판으로 타날 후 도장으로 찍은 것)

I 유형의 경우 타날판으로 凸面에 타날 후 도장으로 찍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는 평기와의 타날면에서 도장으로 찍은 압력에 의해서 평면상 “ㅼ” 상

71) 차순철, 위의 논문, 2000, p.237.

의 흔적이 확인된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27점 중에서 3점으로 [사천(수1)], [창림(수1)], [창림(수2)]이다. 이러한 사찰명 평기와의 보면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점**

- 첫째, 명문의 새김방법에 있어 타날판으로 평기와의 凸面に 타날 한 후, 사찰명이 새겨진 도장으로 찍었다.
- 둘째, 명문의 내용에 있어 사찰명만 표기되었다.
- 셋째, 명문의 방향은 모두 右書이다.
- 넷째, 타날문양에 있어 선문, 사격자문 등의 단독문이다.
- 다섯째, 모두 수키와이다.
- 여섯째, 수키와의 경우 형태가 “梯”형의 토수기와이고 타날면의 형태가 각이져 있는 상태이다.

**(2) 차이점**

- 첫째, 타날판의 길이가 중판인 것[창림(수1), 창림(수2)]과 장판인 것[사천(수1)]이 있다.
- 둘째, 명문이 음각인 것[창림(수1)], [창림(수2)]과 양각인 것[사천(수1)]이 있다.
- 셋째, 명문주위에 방곽이 없는 것[창림(수1), 창림(수2)]과 방곽이 있는 것[사천(수1)]이 있다. 방곽이 있는 [사천(수1)]의 경우는 정사각형의 방곽 내에 사분할하여 각각의 공간에 명문이 배치되어 있다.
- 넷째, 명문이 1행인 것[창림(수1), 창림(수2)]과 2행인 것[사천(수1)]이 있다.

다. [사천(수1)]의 경우,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혀진다.

## 2) II유형(정방형 방곽 내 2행의 명문이 나타나는 형태)

II유형의 경우 명문의 구조에 있어서 정방형 방곽 내 2행의 명문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27점 중에서 7점으로 [사천(암1)], [사천(암2)], [사천(암3)], [사천(암4)], [사천(암6)], [영묘(암1)], [영묘(암2)]이다. 이러한 명문기와의 보면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공통점

첫째, 명문의 새김방법에 있어서 타날판에 명문을 음각한 후, 평기와의 凸面에 타날하였다.

둘째, 정방형의 방곽 내에는 사찰명만 표기되어 있고 방곽내에는 모두 4자이다.

셋째, 명문은 凸面に 모두 양각으로 확인된다.

넷째, 타날판의 길이는 모두 장판이다.

다섯째, 타날문양에 있어서 격자문, 사격자문, 선문 등의 단독문이다.

여섯째, 모두 암키와이다.

## (2) 차이점

- 첫째, 명문의 방향이 左書인 것[영묘(암1)], [영묘(암2)]과 右書인 것[사천(암1)], [사천(암2)], [사천(암3)], [사천(암4)], [사천(암6)]이 있다.
- 둘째, 명문의 읽는 순서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는 것[사천(암6)]과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는 것[사천(암1)], [사천(암2)], [사천(암3)], [사천(암4)], [영묘(암1)], [영묘(암2)]이 있다.
- 셋째, 명문 중에서 [영묘(암1)], [영묘(암2)]의 경우 “靈廟”와 “寺”의 명문 사이에 “之”자가 표기되어 있다.<sup>72)</sup>
- 넷째, 명문 내용 중에서 [영묘(암2)]의 경우 종선문의 타날문양 내에 “承全”이라는 명문이 부가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 3) Ⅲ유형(장방형의 방곽 내 1행의 명문이 종서로 나타나는 형태)

Ⅲ유형의 경우 명문의 구조에 있어서 장방형의 방곽 내 1행의 명문이 종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27점 중에서 5점으로서 [사천(암5)], [갑산(암1)], [갑산(암2)], [창림(암1)], [보문(암1)]이다. 이러한 명문기와의를 보면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공통점

- 첫째, 명문의 새김방법에 있어서 타날판에 명문을 음각한 후, 평기와의 凸面에 타날하였다.
- 둘째, 장방형의 방곽 내 명문이 표기되어 있고 모두 종서이다.
- 셋째, 명문은 凸面에 모두 양각으로 확인된다.
- 넷째, 타날판의 길이는 모두 장판이다.
- 다섯째, 타날문양에 있어서 종선문의 단독문이다.
- 여섯째, 모두 암키와이다.

### (2) 차이점

- 첫째, 사찰명만 표기된 것 [갑산(암1)], [갑산(암2)], [보문(암1)]이 있고, 사찰명 이외 간지명, “~瓦草” 등 부가적인 단어가 표기된 것[사천(암5)], [창림(암1)]이 있다.
- 둘째, 명문의 방향이 左書인 것[사천(암5)], [보문(암1)]과 右書인 것[갑산(암1)], [갑산(암2)], [창림(암1)]이 있다.

72) 이러한 사찰명과 “寺”자 사이의 “之”자는 万正之寺 因井之寺 銘 명문수막새와 후술할 “~瓦 密谷之寺” 명 암키와에서도 확인된다.



**4) IV유형 (방곽 내 명문이 확인되지 않고 명문만 있는 형태)**

IV유형의 경우 방곽 내 명문이 확인되지 않고 명문만 있는 형태이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27점 중에서 12점으로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확인된다. [갑산(암3)], [갑산(암4)], [갑산(암5)], [갑산(암6)], [갑산(암7)], [갑산(수1)], [영묘(암3)], [영묘(수1)], [안계(암1)], [안계(수1)], [밀곡(수1)], [왕만(수1)]이며 이러한 명문기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점**

- 첫째, 명문의 새김방법에 있어서 타날판에 명문을 음각한 후, 평기와의 凸面에 타날하였다.
- 둘째, 방곽 내 명문이 확인되지 않고 명문만 있는 형태이다.
- 셋째, 명문은 凸面에 모두 양각으로 확인된다.
- 넷째, 타날판의 길이는 모두 장판이다.

다섯째, 수키와의 경우 “梯”형의 토수기와이며 타날면의 형태가 등글다.



그림31. IV유형(방곽 내 명문이 확인되지 않고 명문만 있는 형태)

## (2) 차이점

첫째, 사찰명[갑산(암4)], [갑산(암5)], [갑산(수1)], [안계(암1)], [안계(수1)]과 사찰명이외의 다른 명문[갑산(암3)], [갑산(암6)], [갑산(암7)], [영묘(암3)], [영묘(수1)], [밀곡(암1)], [왕만(암1)]이 부가되어 있다. 둘째, 명문의 방향이 左書인 것[갑산(암3)], [갑산(암6)], [갑산(암7)], [영

묘(암3), [영묘(수1)], [왕만(수1)]과 右書인 것[갑산(암4)], [갑산(암5)], [갑산(수1)], [안계(암1)], [안계(수1)], [밀곡(암1)]이 있다.  
 셋째, 명문이 2행으로 된 것[갑산(암6)]도 확인된다.  
 넷째, 타날문양에 있어 복합문[왕만(암1)]이 확인된다.

<표8. 사찰명 평기와 유형분류표>

유형	분류기준	종류 및 갯수	명문의 기준						기와속성의 기준							
			명문새김방법		명문의 구조		명문내용		타날판		타날문양		수키와타날면형태			
			도장	타날	방곽유무	명문방향	우서	좌서	사찰명	사찰명+a	중판	장판	단독문	복합문	각	등
I 유형	기와의 철면에 타날판으로 타날 후 도장으로 찍은 것	사천(암1), 창립(수1), 창립(수2)	3점	○		○	○			○	○	○			○	
II 유형	장방형의 방곽 내 2행의 명문이 나타나는 형태	사천(암1), 사천(암2), 사천(암3), 사천(암4), 사천(암6), 영묘(암1), 영묘(암2)	7점		○	○	○	○	○	○		○	○			
III 유형	장방형의 방곽 내 1행의 명문이 종서로 나타나는 형태	사천(암5), 갑산(암1), 갑산(암2), 창립(암1), 보문(암1)	5점		○	○	○	○	○		○	○				
IV 유형	방곽 내 명문이 확인되지 않고 명문만 있는 형태	갑산(암3), 갑산(암4), 갑산(암5), 갑산(암6), 갑산(암7), 갑산(수1), 영묘(암3), 영묘(수1), 안계(암1), 안계(수1), 밀곡(암1), 왕만(암1)	12점		○		○	○	○		○	○	○			○

#### IV. 사찰명 평기와의 유형별 편년과 단계설정 및 특징

명문기와 중에서 연호명이 표기된 기와의 경우, 시기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편년을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호명이 표기된 기와는 전체 기와수량에 비하면 아주 한정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유적에서 항상 출토되지 않기 때문에 기와를 편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이것은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경주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명문기와 중 편년을 알 수 있는 연호명 기와로 확인되는 것은 2점

이 있다. 망성리 와요지, 사천왕사지, 나원리사지, 안압지, 나정 등에서 출토된 「儀鳳」 「四年」 「皆土」 (679년) 명 명문 암키와와 남산 용장사지, 남산 지암곡 제3사지에서 출토된 「元統二年甲戌三月日葺長寺」 (1334년) 명 명문 암키와가 있다.<sup>73)</sup> 따라서 이외에 명문기와는 연호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년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기와 편년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편년작업이 시도되었다. 지금까지 기와 연구성과로 볼 때, 편년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크게 문양과 기와 제작방법에 의한 흔적 등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여기서는 선학들의 기와편년에서 유용하게 적용되는 속성을 참고하여 명문에서 본 기준(명문의 새김방법, 명문의 내용)과 기와의 제작속성(타날판의 길이, 타날문양, 수키와의 형태 및 단면형태)에서 본 기준을 통해 각 유형별로 적용하여 편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각의 속성 내에서 사찰명 평기와의 연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비교유물로 삼아서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그 다음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특징을 파악한 후 사찰명 평기와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각 유형별 편년 검토

### 1) I 유형

I 유형에서의 사찰명 평기와[사천(수1)], [창림(수1)], [창림(수2)]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모두 기와의 凸面에 타날판으로 타날 후 도장으로 찍은 것이 그 특징이다. 그리고 차이점은 타날판 길이에 있어 중판과 장판이 각각 확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문의 새김방법과 타날판 길이, 수키와의 형태 및 단면형태 등이 편년을 설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유물을 통해 그 예를 살펴보고 편년을 설정하고자 한다.

#### (1) 「南宮」 「之印」 명 수키와<sup>74)</sup> (그림32) -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경주박물관부지의 우물 내에서 출토되었고 현재 광단부와 측면의 일부가 남아있는 ‘南宮之印’ 명 토수키와편이다. 색조는 외면이 회황색을 띠고,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凸面에는 선문의 중판타날판으로 타날 후 명문을 압인하였다. 측면에는 凹面에서 凸面쪽으로 와도흔적이 있으

73) 이외에 분황사에서 “萬曆十五年”(1587년)명과 “萬曆十六年”(1588년) 명 조선시대 연호명 명문암막새가 확인되었다.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위의 보고서, 2005, p.93, 881번, 883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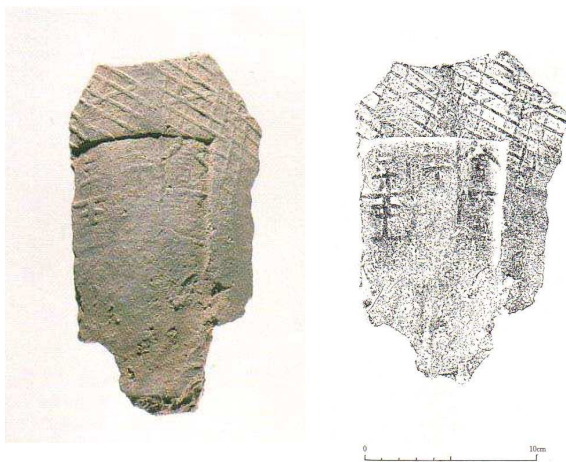
74) 國立慶州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敷地內 發掘調査報告書』, 2002, p.216, 圖面107-④, p.379, 圖版105.

며 내면은 포목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이 명문기와가 출토된 우물 내에서는 평저호, 사각편병, 중관타날수키와편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이와 같은 명문기와가 동천동 공동주택 건설부지 내 유적에서도 출토되었다.<sup>75)</sup>



그림32. 경주박물관 부지 우물 출토 「南宮」 「之印」 명 수키와편

(2) 「會昌七」 「年丁卯」 「年末印」 명 수키와<sup>76)</sup> (그림33) -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것으로 동체부의 일부가 남아있는 토수키와편이다. 凸面에는 격자문의 장관타날판으로 타날 후 명문이 새겨진 도장으로 압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명문은 종서로 3행의 「會昌七」 「年丁卯」 「年末印」 명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서양각되어 있는데 ‘會昌七年’은 847년에

그림33. 부소산성 출토 「會昌七」 「年丁卯」 「年末印」 수키와편 해당된다. 그리고 명문은 정방형 방곽 내의 구획된 9개 공간 안에 각각 명문이 표기되어 있다. 이 명문기

7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주 동천동 공동주택 건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집, 2007. 조운주, 「경주 동천동 공동주택 건설부지내 유적」 『徐羅伐考古』, 2006, p.135, 사진10.  
 76) 吉井秀夫, 「扶蘇山城出土“會昌七年”銘文字瓦のめぐつて」 『古代文化』 11, 古代學協會, 2004, p.17, 第 2 -3. 국립청주박물관 청주인쇄출판박람회조직위원회, 위의 논문, 2000, p.130, NO.176.

와의 경우, 타날판에 음각하여 새겨진 암 수키와편, 타날판으로 타날 후 도장으로 압인한 수키와편, 명문 암막새에 새겨진 것 등 총 9종류가 확인된다.<sup>77)</sup>

(3) 「馬忽受解空口草」 명 암키와<sup>78)</sup> (그림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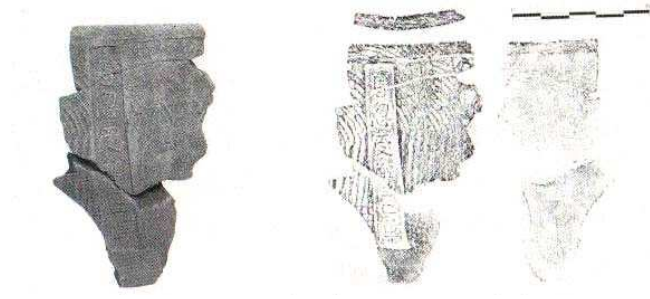


그림34. 포천 반월산성 출토 「馬忽受解空口草」 암키와편

경기도 포천 반월산성에서 출토된 것이며 단부와 동체부의 일부가 남아 있는 암키와편이다. 凸面에 곡선문의 장판타날판으로 타날한 후 명문이 새겨진 도장으로 압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명문은 장방형의 방각 내에 「馬忽受解空口草」

명이 종서로 우서양각되어있다. 명문의 내용 중 ‘馬忽’ 명은 『三國史記』地理志에 언급되었는데 지명의 하한을 757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판타날판의 타날문양과 명문의 내용 중 ‘草’ 자로 볼 때 9세기 중엽에서 10세기 초엽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소개한 3점의 유물을 통해 I 유형의 편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79)</sup> 첫째 명문새김방법은 관련유물 모두 기와의 凸面에 타날판으로 압인한 후 도장으로 찍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會昌七」「年丁卯」「年末印」 명 명문수키와는 연호명이 표기된 자료로서 년대는 847년이다. 포천 반월산성 출토 「馬忽受解空口草」 암키와편도 9세기 중엽에서 10세기 초엽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도장이 압인된 기와와 관련되는 기록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신라본기 제7, 문무왕 15년(674년)조에 보면 “봄 정월에 구리로 각 관청 및 주군의 인장을 만들어 나누어주었다.” 라는 내용이 있어

77) 吉井秀夫, 2004, 「扶蘇山城出土“會昌七年”銘文字瓦のめぐつて」 『古代文化』 11, 古代學協會.

78) 단국대학교 사학과 포천군, 『포천 반월산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1996, p.45.  
김창호, 『한국 고대 불교고고학의 연구』, 서경문화사, 2007, p.180.

79) 위에서 소개한 3점 이외에도 도장으로 압인한 기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경주에서는 교동, 동천동 도시유적에서 출토한 「井桃」 명 암키와가 있다. 경주이외의 지역에서는 백제의 공주, 익산, 부여 등에서 출토한 인각와가 있고, 경기도 하남시 선동에서 출토되었다는 「北漢受國蟹口船」 명 기와가 있다. 또, 발해의 경우에서도 다수 확인된다. 國立中央博物館, 『유창종 기증 기와 전돌』, 통천문화사, 2002, p.109, 153번

도장으로 찍은 명문기와와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타날판의 길이는 현재 기와의 편년연구에 있어 주된 속성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현재 선학들의 이러한 연구 성과는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단판→중판→장판으로 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다.<sup>80)</sup> 그 중에서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의 기와자료에서는 단판과 중판은 시간적 속성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타날판에 의한 절대 연대 기와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판은 「儀鳳」 「四年」 「皆土」(679년) 명 암키와이고 장판은 「會昌七」 「年丁卯」 「年末印」(847년)명 수키와이다. 그러나 중판의 경우 절대연대 기와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상한을 7세기 말로, 하한을 9~10세기로 보는 견해를 수용하고자 한다.<sup>81)</sup> I 유형의 사찰명 평기와의 경우 [창림(수1)], [창림(수2)]는 중판으로 판단되고, [사천(암1)]은 장판으로 판단된다. [창림(수1)], [창림(수2)]는 기존의 견해에 따라서 상한이 7세기말에서 하한을 9~10세기초로 판단되고, [사천(수1)]의 경우도 「會昌七」 「年丁卯」 「年末印」(847년)명 수키와와 유사점을 따져볼 때<sup>82)</sup> 9세기 중엽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사천(수1)]을 통해 통일신라시대 경주에서도 장판 타날판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sup>83)</sup> 이를 통해 통일신라시대 중판과 장판타날판이 같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수키와의 형태와 단면형태에 대해서이다. I 유형의 사찰명 평기와는 모두 수키와이고 梯형의 토수키와이며 타날면의 형태도 각이 져 있다. 이는 비교유물 중에서 「南宮」 「之印」 명 수키와와 「會昌七」 「年丁卯」 「年末印」 명 수키와도 梯형의 토수키와이며 후자의 경우는 단면형태에 있어서 각

80) 徐五善, 위의 논문, 1985.

李仁淑, 위의 논문, 2004.

趙成允, 「新羅 出土 中板 打捺紋樣 평기와의 製作時期와 그 意味」 『佛教考古學』 第2號, 威德大學校博物館, 2002.

趙成允, 「新羅 長板 打捺紋樣 평기와의 慶州 製作與否에 대하여」 『梨花史學研究』 第30輯, 梨花史學研究所, 2003.

崔兌先, 『平瓦製作法の 變遷에 대한 研究』, 慶北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93.

81) 趙成允, 앞의 논문, 2002, pp.126~127.

82) [사천(수1)]과 「會昌七」 「年丁卯」 「年末印」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와의 凸面에 타날판으로 타날 후 정방형의 도장으로 찍었다.

둘째, 명문의 방향이 우서이며 우측에서 좌측으로 명문이 읽혀진다.

셋째, 정방형의 방곽 내 각각 4개와 9개의 명문의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그 안에 명문이 확인된다.

넷째, 타날판의 길이에 있어 장판타날판이며 타날문양도 사격자문이다.

다섯째, 梯형의 형태를 띠는 토수키와이며 타날면이 각이 져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명문의 내용만 다를 뿐 기와제작기법으로 볼 때 유사점이 많다.

83) 趙成允, 앞의 논문, 2003, p.73.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경주에서는 주로 중판타날 평기와의 확인되고 지방에는 장판타날 평기와의 확인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이 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I 유형의 사찰명 평기와는 9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3가지의 속성(명문의 새김방법, 타날판의 길이, 수키와의 형태 및 단면형태)을 통해서 I 유형의 시기를 볼 때 9세기 중엽에서 10세기 초로 설정할 수 있다.

## 2) II 유형

II 유형에서의 사찰명 평기와[사천(암1)], [사천(암2)], [사천(암3)], [사천(암4)], [사천(암6)], [영묘(암1)], [영묘(암2)]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정방형 방곽 내 2행의 명문이 나타나는 형태이다. 그리고 장판 타날판에 명문을 직접 음각한 후 기와의 凸面에 타날하는 것으로서 II 유형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차이점은 명문의 내용 중 사찰명과 사찰명 이외에 다른 부가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것이다.

II 유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련 유물은 없지만 다른 유형의 사찰명 평기와에서 보이는 명문의 새김방법, 명문의 내용, 명문구조, 타날판 길이, 타날문양과 공반된 유물 등을 통해 대략 시기는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명문의 새김방법은 I 유형과 달리 타날판에 명문을 음각하여 기와의 철면에 타날한 것이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I 유형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둘째, 명문의 내용에 있어서 [사천(암6)]은 사찰명 뒤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고, [영묘(암1)], [영묘(암2)]는 방곽내 “靈廟”와 “寺”자 사이에 “之”자가 확인된다. 이러한 사찰명과 “寺”자 사이의 “之”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正万之寺」명 명문수막새<sup>84)</sup>, 「因井之寺」명 명문수막새<sup>85)</sup>, 「~瓦 密谷之寺」명 암키와 등에서도 확인된다. 또, [영묘(암2)]는 사찰명 이외에 “承全”

84) 高正龍, 위의 논문, 2004, p.30, 第6 -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王京地區內가스관埋設地』學術研究叢書16, 1996, p.120, 삽도71, p.283, 사진123-2.

國立慶州博物館, 위의 도록, 2002, p.116, NO.244.

金東賢 외, 위의 책, NO.37.

85) 高正龍, 위의 논문, p.30, 第6 -2.

國立慶州博物館,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위의 도록, 2000, p.357, NO.1153.

金東賢 외, 위의 책, 1976, NO.37.

濱田耕作 梅原末治, 『新羅古瓦の研究』京都帝國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報告 第十三冊, 京都帝國大學, 1934, 301.

井內古文化研究室, 『朝鮮瓦磚圖譜』IV 新羅2, 1977, p.85, 544번.

이라는 다른 단어가 타날문양 내에서 별도로 확인된다. 이러한 예들은 I 유형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명문의 새김방법과 같이 II 유형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명문의 구조에 있어 모두 정방형의 방곽 내 2행의 명문이 나타나는 형태인데 이는 I 유형의 [사천(수1)]와 유사한 형태이다. 따라서 [사천(수1)]에서 그 시원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타날판의 길이가 모두 장판인데 이는 사찰명 명문기와에 있어서 장판 타날판이 정형화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타날문양은 사격자문, 격자문 등의 단독문이 확인된다.<sup>86)</sup> 이것과 관련해서 시기를 살펴보면 유용한 자료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불국사 성보박물관 예정부지 출토 매납유물<sup>87)</sup> (그림 35)



그림 35. 불국사 성보박물관 예정부지 출토 매납유물

불국사 성보박물관 예정부지 출토 ‘가’구역 건물지1의 건물지 기단석축 북쪽에서 출토한 매납유물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청자완은 암키와 4편을 원형으로 돌려 세워서 공간을 구획하였다. 4편의 암키와 중 3편은 한 개체의 암키와

86) 崔晶惠, 『高麗時代 평기와의 編年研究 -文樣形態를 中心으로-』, 慶星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p.52에는 타날문양에 있어서 복합문이 주로 등장하는 시기를 13세기이후로 보고 있다. 따라서 13세기 초까지는 단독문의 타날문양이 성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87) 慶州大學校博物館, 위의 보고서, 2006, pp.19~20, p.496, 도판134.

로 서로 접합되며 다른 한편은 무문의 암키와이다. 하나의 암키와편은 凸面의 타날문양이 장판의 선문이며 단독문이다. 공반되어 출토된 청자완의 경우 한국식 해무리굽 청자이며 시기는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로 편년된다.<sup>88)</sup> 이로 볼 때 선문을 가지는 단독문은 적어도 10세기말에서 11세기초에는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독문을 가지는 타날문양은 10세기말에서 11세기 초까지 전후한 시기에 성행했으리라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앞에서 언급한 기와의 속성 5가지(명문의 새김방법, 명문의 내용, 명문구조, 타날판 길이, 타날문양과 공반된 유물)를 종합할 때 II유형의 편년은 I 유형 이후의 10세기 초에서 11세기 초로 설정할 수 있다.

### 3) III유형

III유형에서의 사찰명 평기와[사천(암5)], [갑산(암1)], [갑산(암2)], [창림(암1)], [보문(암1)]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장방형 방곽 내 1행의 명문이 중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차이점은 사찰명과 사찰명과 부가된 다른 단어가 확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명문의 내용, 타날판 길이, 타날문양 등이 편년을 설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유물을 통해 그 예를 살펴보고 편년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명문의 내용에 있어서 갑산C1의 경우, 명문의 마지막 단어가 “~瓦草”자가 확인되는데 이와 관련된 유물은 다음과 같다.

#### (1) 「太平興國五年庚辰」 「彌勒藪龍泉房瓦草」(980년) 명 암키와<sup>89)</sup> (그림36)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동체부와 측면의 일부가 남아있는 암키와편이다. 凸面에서는 중서로 「太平興國五年庚辰」 「彌勒藪龍泉房凡草」<sup>90)</sup> 우서양각되어 있다. 명문주위로 어골문과 사격자문 등이 복합되어 있다. 凹面에는 사절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측면에는 凹面에서 凸面쪽으로 와도흔적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기와편으로 보면, 기와 제작과정 때 명문이 새겨진 복합문의 타날판으로 凸面을 4~5회 정도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88) 李鍾玟,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請求論文, 2002.

89) 李仁淑, 위의 논문, 2004, p.41, 도면7-③.

90) 李仁淑, 위의 논문, 2004, p.40, 예는 이 명문기와를 彌勒藪龍泉房凡草/太平興國五年庚辰로 소개하고 있는데 연호명을 먼저 읽는 것으로 기준으로 할 때 太平興國五年庚辰/彌勒藪龍泉房凡草 순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우측행의 ‘草’ 앞의 명문은 ‘凡’ 자가 아니라 ‘瓦’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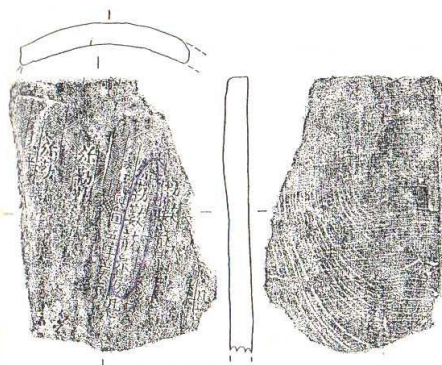


그림36. 미륵사 출토 「太平興國五年庚辰」 「彌勒戴龍泉房瓦草」 명 암키와(980년)

(2) 「大平八年戊辰定」 「定林寺大藏富草」 (1028년)명 암키와<sup>91)</sup> (그림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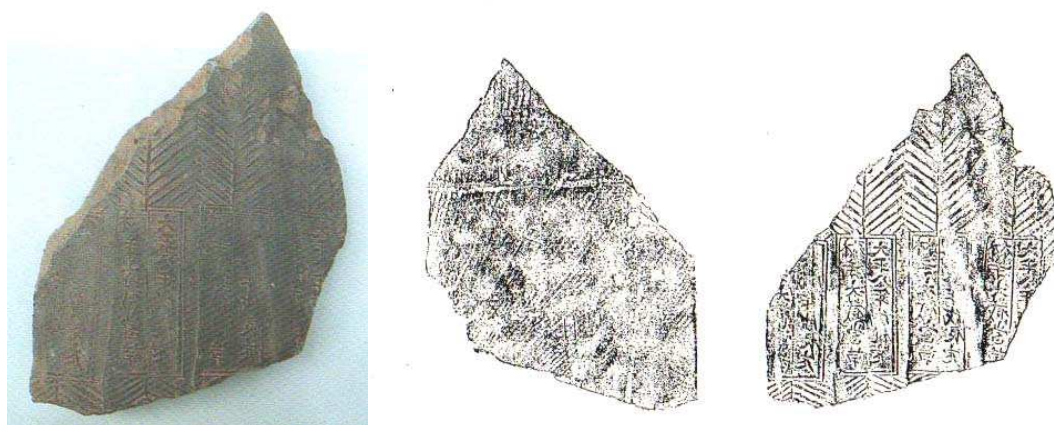


그림37. 「大平八年戊辰」 「定林寺大藏富草」 (1028년)명 암키와

부여 정림사지에서 출토된 동체부편의 일부가 남아있는 암키와편이다. 凸面에서는 이중 장방형 방곽 내 「大平八年戊辰」 「定林寺大藏富草」명이 종서로 좌서양각되어 있다. ‘大平八年’은 1028년에 해당하는 연호명이다. 명문주위의

91) 尹武炳, 『定林寺』, 忠南大學校博物館, 1981, pp.336~338.

金誠龜, 『옛기와』, 대원사, 1992, p.79, 사진 68.

李仁淑, 위의 논문, 2004, p.43, 도면8-④~⑥.

상하에는 어골문이 확인된다. 凹面에는 사절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측면에는 凹面에서 凸面쪽으로 와도흔적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기와편으로 보면, 기와의 제작과정 때 명문이 새겨진 어골문의 타날판으로 凸面을 4회 정도 타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위의 2점을 통해 실례를 알아보았다. 본래 ‘草’는 명사로 풀이나 갈대를 뜻하나 단어를 연결하면 “집”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92)</sup> 이러한 명문은 10세기말에서 11세기까지에 유행한 것이라고 본다.<sup>93)</sup> 그리고, 「大平八年戊辰」 「定林寺大藏富草」 명 주위로 장방형 방곽 또한 Ⅲ유형과 유사점으로 파악된다.

둘째, 명문의 내용에 있어 사찰명과 사찰명 이외에 다른 단어가 추가로 확인된다. 후자의 경우 앞의 Ⅱ유형과 달리 명문의 장문화가 확인되기 시작한다. [사천(암5)]의 경우, 사찰명 이외에 간지명<sup>94)</sup>과 중수관련 내용이 확인되고, [창림(암1)]의 경우, 사찰명 뒤에 “~瓦草” 명 확인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장문화는 앞서 설명한 I Ⅱ유형과 다른 점이다.

셋째, 타날판의 길이가 모두 장판인데 이는 사찰명 평기와의 있어서 Ⅱ유형과 마찬가지로 장판 타날판이 정형화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타날문양이 사격자문, 격자문 등 단독문이 확인된다.

이상 이러한 3가지의 속성(명문의 내용, 명문의 구조, 타날판 길이, 타날문양)을 통해서 Ⅲ유형의 시기를 볼 때 10세기 말에서 11세기 말로 설정할 수 있다.

#### 4) IV유형

IV유형에서의 사찰명 평기와[갑산(암3)], [갑산(암4)], [갑산(암5)], [갑산(암6)], [갑산(암7)], [갑산(수1)], [영묘(암3)], [영묘(수1)], [안계(암1)], [안계(수1)], [밀곡(암1)], [왕만(암1)]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방곽 내 명문이 없고 타날문양 내에서 명문이 주로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차이점은 사찰명과 사찰명과 함께 부가된 다른 단어가 확인되는 것이다. 또 타날문양에 있어 복합문이 나타나기 시작되고 수키와의 단면형태가 등근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IV유형에 있어서 다른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사찰명 평기와의에서 보

92) 金炳熙, 위의 논문, 2001, p.41, 에서는 기와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93) 松井忠春 외, 위의 논문, 1994, p.41.

94) 위의 간지명은 제작기법으로 볼 때, 969년, 1029년, 1089년, 1149년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명문의 내용, 타날판 길이, 타날 문양, 수키와의 단면형태 등을 통해 대략의 시기는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유형과 직접적으로 관련 유물은 없지만 위의 속성들을 살펴봄으로서 편년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명문의 내용에 있어서 [갑산(암4)], [갑산(암5)], [갑산(수1)], [안계(암1)], [안계(수1)]의 경우는 사찰명만 확인되고, [갑산(암3)], [갑산(암6)], [갑산(암7)], [영묘(암3)], [영묘(수1)], [밀곡(암1)], [왕만(암1)]의 경우는 사찰명과 함께 다른 단어가 같이 확인된다. 주로 사찰명 뒤에 간지명<sup>95)</sup>, “草”명, “~造瓦”명 등의 단어가 부가되어 있다. 특히 “草”자의 경우 앞의 Ⅲ유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주로 성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명문이 장문화된 기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타날판의 길이가 모두 장판인데 이는 사찰명 평기와의에 있어서 Ⅱ Ⅲ 유형과 마찬가지로 장판타날판이 정형화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타날문양에 있어 [왕만(수1)]의 경우, 종선문과 마름모문이 복합된 타날문양인데 이러한 복합문의 타날문양은 주로 13세기부터 확인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96)</sup>

넷째, 수키와[갑산(수1)], [영묘(수1)], [안계(암1)]의 단면형태가 둥근 형태이다.<sup>97)</sup>

이상 이러한 4가지의 속성(명문의 내용, 타날판 길이, 타날문양, 수키와의 단면형태)을 통해서 Ⅲ유형의 시기를 볼 때 10세기 말에서 13세기 초로 설정할 수 있다.

## 2. 단계설정과 단계별 특징

### 1) 단계설정

앞절에서 언급한 각각의 유형에 대한 편년검토를 통해 여기서는 단계를 설정하여 사찰명 평기와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4가지 유형에 대한 편년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I 유형(기와의 凸面에 타날판으로 타날 후, 도장으로 찍은 형태)

- 9세기 중엽에서 10세기 초

95) [갑산(암6)]의 “庚申”은 제작기법으로 볼 때, 1020년, 1080년, 1140년, 1200년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96) 崔晶惠, 위의 논문, 1996, p.52에는 타날문양에 있어 복합문이 주로 등장시기를 13세기 이후로 보고 있다.

97) 李仁淑, 위의 논문, 2004, p.100에서는 「乾德三年~」명(965) 수키와를 통해서 10세기 중엽이후 이 속성만 관찰된다고 언급하였다.

- II 유형(정방형 방곽 내 2행의 명문이 나타나는 형태)
  - 10세기 초에서 11세기 초
- III 유형(장방형 방곽 내 1행의 명문이 종서로 나타나는 형태)
  - 10세기말에서 11세기 말
- IV 유형(방곽 내 명문이 확인되지 않고 명문만 있는 형태)
  - 10세기 말에서 13세기 초

4가지 유형에서 편년을 살펴볼 때 크게 2개의 시점이 확인된다. I 유형의 경우 통일신라시대이고 II III IV 유형의 경우 고려시대 초엽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와 후자를 사찰명 명문평기와 의 속성에서 구분하는 기준은 명문의 새김방법에 있어 도장으로 찍었느냐, 타날판으로 쳤느냐이다. 따라서 I 유형의 경우 명문 새김방법에 있어 도장으로 찍은 것을 1단계로 설정하였다.

II III IV 유형의 경우, 고려시대 초엽에 해당되는데 I 유형처럼 뚜렷하게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지만 이들 유형 내에서 구분하는 기준은 찾을 수 있다. 바로 명문 주위에 방곽의 유무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명문 주위에 방곽이 있는 II III 유형을 2단계로 하였고, 명문주위에 방곽이 없는 IV 유형을 3단계로 하였다. 이것을 표로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9. 사찰명 평기와 단계설정표>

유형	분류기준	종류	갯수	시기	시대	단계
I 유형	기와의 凸面에 타날판으로 타날 후 도장으로 찍은 것	사천(수1), 창림(수1), 창림(수2)	3점	9세기 중엽~10세기 초	통일신라시대 말기	1단계
II 유형	정방형 방곽 내 2행의 명문이 나타나는 형태	사천(암1), 사천(암2), 사천(암3), 사천(암4), 사천(암6), 영묘(암1), 영묘(암2)	7점	10세기 초~11세기 초	고려시대 초기	2단계
III 유형	장방형 방곽 내 1행의 명문이 종서로 나타나는 형태	사천(암5), 갑산(암1), 갑산(암2), 창림(암1), 보문(암1)	5점	10세기 말~11세기 말		
IV 유형	방곽 내 명문이 확인되지 않고 명문만 있는 형태	갑산(암3), 갑산(암4), 갑산(암5), 갑산(암6), 갑산(암7), 갑산(수1), 영묘(암3), 영묘(수1), 안계(암1), 안계(수1), 밀곡(암1), 왕만(암1)	12점	10세기 말~13세기 초		3단계

## 2) 단계별 특징

- (1) 1단계(9세기중엽 ~ 10세기초) - 통일신라시대 말기
  - ① 사찰명 평기와의 명문새김방법에 있어 기와를 타날한 후 도장으로 찍었다.
  - ② 명문의 내용은 사찰명만 확인된다.
  - ③ 명문의 방향은 모두 右書이다.
  - ④ 타날판의 길이가 중판과 장판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시기이다.
  - ⑤ 타날문양은 선문, 사격자문 등의 단독문이다.
  - ⑥ 수키와의 형태는 梯형의 토수기와이며 타날면은 각이 져 있다.
  
- (2) 2단계(10세기초~11세기말) - 고려시대 초기
  - ① 사찰명 명문기와의 명문 새김방법에 있어 타날판에 명문을 직접 음각한 후 기와의 凸面에 타날하였다.
  - ② 명문의 구조에 있어 명문주위에 방형의 방곽이 있다.
  - ③ 명문의 내용은 사찰명과 사찰명 뒤의 부가된 단어가 혼재되어 확인된다.
  - ④ 명문의 방향은 右書와 左書가 혼재되어 확인된다.
  - ⑤ 타날판의 길이는 모두 장판이다.
  - ⑥ 타날문양은 격자문, 사격자문, 선문 등의 단독문양이다.
  
- (3) 3단계(10세기말~13세기초) - 고려시대 초기
  - ① 사찰명 명문기와의 명문 새김방법에 있어 타날판에 명문을 직접 음각한 후 기와의 凸面에 타날하였다.
  - ② 명문의 구조에 있어 명문주위에 방형의 방곽이 없다.
  - ③ 명문의 내용은 사찰명과 사찰명 뒤의 부가된 단어가 혼재되어 확인되는데 조금씩 장문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 ④ 명문의 방향은 右書와 左書가 혼재되어 확인된다.
  - ⑤ 타날판의 길이는 모두 장판이다.
  - ⑥ 타날문양에서 복합문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 ⑦ 수키와의 단면형태가 둥글다.

## V. 사찰명 명문 평기와의 변천과정과 그 원인

### 1. 사찰명 명문 평기와의 변천과정

사찰명 명문평기와 속성의 변천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0. 사찰명 명문 평기와 변천과정표 >

단계	종류 및 갯수	명문의 기준						기와속성의 기준					
		명문 새김 방법		명문의 구조		명문내용		타날판 길이		타날문양		수키와 타날면형태	
		도장	타날	방각 유무	명문 방향 우서 좌서	사찰명	사찰명 + a	중판	장판	단독문	복합문	각	등
1단계 (9세기중엽 ~10세기초)	사천(수1), 창림(수1), 창림(수2)	3점	■	■	■	■	■	■	■	■	■	■	■
2단계 (10세기초 ~11세기말)	사천(암1), 사천(암2), 사천(암3), 사천(암4), 사천(암6), 영묘(암1), 영묘(암2), 사천(암5), 갑산(암1), 갑산(암2), 창림(암1), 보문(암1)	12점	■	■	■	■	■	■	■	■	■	■	■
3단계 (10세기말 ~13세기초)	갑산(암3), 갑산(암4), 갑산(암5), 갑산(암6), 갑산(암7), 갑산(수1), 영묘(암3), 영묘(수1), 안계(암1), 안계(수1), 밀곡(암1), 황만(암1)	12점	■	■	■	■	■	■	■	■	■	■	■

## 1) 명문 기준

### (1) 명문의 새김방법

1단계에는 기와의凸面に 타날 후 도장으로 찍었는데 2단계부터는 타날판에 명문을 직접 음각하여 기와의凸面に 타날하였다.

### (2) 명문의 구조

#### ① 명문의 방각유무

- 2단계까지 명문 주위에 방각이 확인되나 3단계부터는 확인되지 않거나 소멸해 간다.

#### ② 명문의 방향

- 1단계에는 명문의방향이 右書였으나 2단계부터는 右書와 左書가 혼재되

어 확인된다.

### (3) 명문내용

1단계에는 사찰명만 확인되었으나 2단계부터는 사찰명과 함께 다른 단어가 부가됨으로서 명문이 구체화되고 장문화되기 시작한다.

## 2) 기와속성의 기준

### (1) 타날판의 길이

1단계에는 중판과 장판이 혼재되어 확인되나 2단계부터는 장판만 확인된다.

### (2) 타날문양

2단계까지 단독문을 가지는 타날문양이 주로 확인되고, 3단계부터는 단독문과 복합문의 타날문양이 혼재되어 확인된다.

### (3) 수키와의 단면형태

1단계에는 수키와의 단면형태가 각이 저 있으나 3단계부터는 단면형태가 둥근 것이 확인된다.

## 2. 사찰명 평기와의 변천원인

여기서는 사찰명 평기와의 속성 중 특징적으로 변화한 것에 대해 언급하고 그러한 변화의 시대적 배경을 추정하고자 한다.

경주의 사찰명 평기와는 적어도 「會昌七」 「年丁卯」 「年末印」 명 기와를 통해서 볼 때, 9세기 중엽쯤부터 타날판에 있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sup>98)</sup>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경주에 장판타날기와의 확인되지 않는 것은 출토량으로 볼 때 중판타날판이 주로 사용된다는 점과 제작기술과 관련한 지방과의 차이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에서 장판타날기와의 존재를 완전하게 부인하지 않고 그 출현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다. 물론 지금까지 경주지역의 통일신라시대유적에서 출토되는 기와의 대부분이 중판타날기와의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9세기 중엽쯤의 다른 지방에서<sup>99)</sup> 보면 중판과 장판타날기와의가 같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경주지역 내에서 중판타날기와의만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경주에서는 과연 장판타날기와는 언제부터 확인되는 것일까? 그러한 의문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98) 趙成允, 앞의 논문, 2003, p.73.

99) 이와 관련된 유적은 장도 청해진유적, 경기도 용인 성북리 유적, 영동 계산리 유적, 성주사 등이 있다.

사천왕사에서 출토된 「四天」 「王寺」 명 [사천(수1)] 수키와편이다. 이 명문기와의 경우는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會昌七」 「年丁卯」 「年末印」 명 (847년) 수키와와 비교해 볼 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명문의 내용만 다를 뿐 명문새김방법, 방곽의 형태, 명문구조, 타날문양, 등에 있어서 완전히 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비록 공간적인 거리는 떨어져 있다는 점과 「四天」 「王寺」 명[사천(수1)] 명문기와의 출토량이 소수인 점<sup>100)</sup>이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와에 보이는 제작기법으로 본다면 9세기 중엽 경 통일신라시대 경주에도 장판타날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시점을 시작으로 경주지역의 사찰명 평기와의 속성이 변천하는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 보았다.

1) 장판타날기과가 경주에서 확인되는 원인

- ① 지방의 장판타날기과 제작자의 경주 이입.
- ② 기와수요량의 증가로 인한 기와제작기술의 변화 (중판→장판)

2) 사찰명 명문기과의 속성이 변천하는 원인

- ① 고려초 “東京”이라는 행정적 기능에 의한 관청, 사원 건립에 따른 기와 수요증가<sup>101)</sup>
  - ② 고려왕조의 불교정책으로 인한 기와의 수요증가<sup>102)</sup>
  - ③ 고려 불교사원의 상업활동으로 인한 기와의 수요증가<sup>103)</sup>
- 이러한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예가 사찰명 명문기과가 복수의 장소에서 확인되는 데 다음과 같다. 첫째, 「四天」 「王寺」 [사천(암2)]는 사천왕사지 뿐만 아니라 불국사 경내, 안압지, 분황사 등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甲山寺」 [갑산(암1)] 명문 암키와는 안강 육통리 와요지, 갑산사지에서 확인된다. 셋째, 「靈廟」 「之寺」, 「承全」 [영묘(암2)]은 (傳)흥륜사와 황룡사동편SIE1지구에서 확인되고, 「大令妙寺造瓦」 [영묘(암3)]는 (傳)흥륜사와 신문왕릉 동남방와요지에서 확인된다.<sup>104)</sup> 이것은 당시 기와를 복수 공급하였던 것으로 파악

100) 현재 보고된 수량은 4점이며 각주 25번에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101) 『高麗史』 卷57, 地理志 2, 慶尙道 東京留守官慶州 ; 『高麗史節要』 卷2, 成宗 6年(987년) 11月

102) 이러한 것은 경주에서 고려시대 사찰의 중수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예가 「四天王寺己巳年重修瓦」 [사천(암6)]이다. 이 기와의 년대의 경우, 고려초로 생각되는데 969년, 1029년, 1089년, 1149년 등이 있다.

103) 정용범, 「고려시대 사원의 상업활동」 『釜大史學』 第 16輯, 慶州四學會, 2006, pp.537~538.

104) 본고에 언급되지 않은 사찰명 명문기과의 복수출토지의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皇龍寺」 명 암키와는 보리사지, 포석정서북쪽폐사지, 황룡사동편SIE1지구에서 확인된다. 둘째, 「皇龍」 명 암키와는

된다.

④ 왕조가 바뀔에 따라 행정적 체제에 따른 와요체제의 변화<sup>105)</sup>

고려시대 초 경주는 고려 수도 개경과 서경에 이은 3경 중의 제 3도시로서 그 위치가 신라가 멸망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락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인하여 기와의 수요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관청과 사찰이 건립되었을 것이고 이곳의 기와를 조달하기 위해서 기와요지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sup>106)</sup>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배경 안에서 기와와 관련된 수공업체제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사찰명 평기와의 속성 변천과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기와는 통일신라시대의 기술적 영향에 속해 있으면서 보다 기능적인 생산을 위한 다양한 변화요소를 시도하였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는 다른 수공업 생산품에 비해 기능성이 강한 평기와의 제작에 있어서 그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sup>107)</sup>

## VI. 맺음말

이상 경주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말기에서 고려초기의 사찰명 명문기와의 판단되는 24종 27점 (사찰명 8종류)을 소개하고, 명문의 특징을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 다음 각각의 유형 내에서 명문으로 본 기준(명문의 새김방법, 명문의 구조, 명문의 내용)과 기와속성에서 본 기준(타날판 길이, 타날문양, 수키와의 형태 및 단면형태)으로 편년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기와를 통해서 각 유형별 편년을 설정하였다. 그런 다음 3단계로 변화하는 모습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경주의 사찰명 평기와는 9세기 중엽부터 확인되며 이 시기는 중판과

---

황룡사지, 월정교, 용장리비파곡 제2사지, 황룡사동편SIE1지구에서 확인된다. 셋째, 「四祭寺」명 암막새는 사제사지와 남산리에서 확인되고, 「四祭」명 수막새 또한 사제사지와 남산리에서 확인된다. 넷째, 「元統二年甲戌三月日葺長寺」(1334년) 암키와는 남산 용장사지와 남산 지암곡 제3사지에 확인된다.

105) 이러한 모습은 통일신라시대 주로 관요체제에 의해 운영되었던 것과 달리 고려시대로 접어들면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띠면서도 민간 또는 사찰에 의한 민영수공업이 이전시기 보다 활발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106) 아직 경주지역에서 고려시대 기와요지는 확인되는 예가 소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굴조사 성과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107) 박남수, 『新羅手工業史』, 신서원, 1996.

장판타날기와가 혼재되는 시기로 파악하였다.

둘째, 경주의 사찰명 평기와 중에서 도장으로 찍힌 평기와는 9세기 중엽에서 10세기 초엽에 주로 확인된다.

셋째, 고려시대로 접어들면 사찰명 평기와는 타날판에 직접 음각하여 평기와의 凸面에 타날한 방법으로 확인된다.

넷째, 고려시대로 접어들면 사찰명 평기와가 다수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초기에는 명문에서 사찰명만 나타내는데 시기가 지날수록 사찰 뒤에 다른 단어와 함께 확인되는 것으로 변화한다.

다섯째, 타날문양은 단독문에서 복합문으로 변화하는 양상인데 그 변화의 속도는 더딘 것 같다.

여섯째, 사찰명 평기와의 수키와 형태는 10세기 초까지는 타날면 형태가 각이 져 있는데 그 이후로는 둥근 타날면 형태로 변화해가는 것 같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경주의 사찰명 평기와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당시 통일신라시대의 기술적 영향 속에서 고려시대의 기술적 영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당시 고려초 경주지역의 행정적인 개편으로 인한 관청 및 사원건축, 중수 등 기와의 수요증가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고에 있어 미흡한 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소개한 사찰명 평기와의 대부분이 완형이 아닌 편이 다수이고, 지표수습된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편년을 설정하는데 있어 관련유물 중 연호명 기와는 경주가 아닌 곳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공간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신라시대 혹은 고려시대의 새로운 자료(사찰명 기와, 연호명 명문기와) 추가될 때 언제든지 본고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것은 추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완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발굴조사, 지표조사 등의 문화재 조사로 인해 사찰명 혹은 명문기와가 추가로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문화재 조사 시, 사찰명 명문기와 등의 명문기와 출토에 주의를 가졌으면 한다. 이는 유적의 성격 또는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라고 판단된다. 또, 기와 요지에 대한 발굴조사에 세심한 주의를 가졌으면 한다. 위의 사찰명 명문기와의 경우, 기와요지에서 출토한 것은 [갑산(암1)]과 [영묘(암3)]뿐인데 이것도 지표수습이다. 따라서 기와요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시 위에서 언급한 사찰명 명문기와가 출토될 경우 사찰과 기와요지에 대한 수급관계를 밝히는데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參考文獻>

###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 2. 보고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慶州 金丈里遺蹟』學術調查報告 第72冊, 2007.  
慶州大學校博物館, 『慶州佛國寺境內聖寶博物館建立豫定敷地發掘調查報告書』學術研究叢書 第5冊, 2006.  
慶州地域調査研究機關聯合會, 『徐羅伐考古』, 2006.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王京地區內가스관埋設地』學術研究叢書16, 1996.  
-----, 『天龍寺址』學術研究叢書 22, 1998.  
-----, 『鮑石亭模型展示館敷地』學術研究叢書26, 2001.  
-----, 『新羅王京 - 皇龍寺址 東便 SIE1地區-』學術研究叢書32, 2002.  
-----, 『世界文化遺產 慶州南山』, 2002.  
-----, 『慶州 天官寺址 發掘調查報告書』, 學術研究叢書38, 2004.  
-----, 『慶州南山 精密學術調查報告書』, 2004.  
-----, 『芬皇寺 發掘調查報告書 I』學術研究叢書39, 2005.  
-----, 『사천왕사지 발굴조사』현장설명회 자료, 2006.  
國立慶州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敷地內 發掘調查報告書』國立慶州博物館 學術調查報告 第15冊, 2002.  
國立慶州博物館 慶州市, 1997, 『慶州遺蹟地圖』.  
國立文化財研究所, 『將島 淸海鎮』遺蹟發掘調查報告書 I, 2001.  
단국대학교 사학과 포천군, 『포천 반월산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1996.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博物館, 『新羅狼山 遺蹟調査』古蹟調査報告 第一冊, 1985.  
-----, 『錫杖寺址』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第4冊, 1994.  
文化財研究所 慶州古蹟發掘調査團, 『掘佛寺』, 1986.  
-----, 『月精橋 發掘調查報告書』, 1988.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彌勒寺』遺蹟發掘調查報告書 I, 1989.  
朴淳發 姜秉權, 『永同 稽山里遺蹟』,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2002.  
保寧市 忠南大學校博物館, 『聖住寺』忠南大學校 博物館叢書 第17輯, 1998.  
尹武炳, 『定林寺』, 忠南大學校博物館, 1981.  
임상택 전덕재 양시은,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명문기와』, 서울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11, 2002.  
全南大學校博物館 光州直轄市, 『武珍古城 I』, 1989.  
-----, 『武珍古城 II』, 199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주 동천동 공동주택 건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지도위원회자료집, 2007.  
한신大學校博物館, 『龍仁 星福洞 統一新羅 窯址』한신大學校博物館叢書 第18冊, 2004.

### 3. 도록

國立慶州博物館, 『特別展 慶州 南山』, 1995.  
國立慶州博物館, 慶州世界文化엑스포組織委員會, 『新羅瓦塼』, 2000.  
國立慶州博物館, 『文字로 본 新羅』, 학연문화사, 2002.  
國立中央博物館, 『유창종 기증 기와 전돌』, 통천문화사, 2002.  
국립청주박물관 청주인쇄출판박람회조직위원회, 『한국 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2000.  
동국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기념 소장품도록』, 2006.  
영남대학교박물관, 『隱逸의 秀麗한 꿈 新羅瓦當』, 학연문화사, 2002.

### 4. 단행본

金東賢 외, 『新羅의 기와』, 東山文化社, 1976.

김성구, 『옛기와』, 대원사, 1992.  
 김창호, 『한국 고대 불교고고학의 연구』, 서경문화사, 2007.  
 노명호 외, 『韓國古代中世 地方制度의 諸問題』, 집문당, 2004.  
 박남수, 『新羅手工業史』, 신서원, 1996.  
 이근직, 『경주의 문화유산』 답사자료 제 2집, 경주박물관회, 1998.  
 최맹식, 『삼국시대 평기와 연구』, 주류성, 2006.  
 한국기과학회, 『한국 기과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기과학회 학술논집 I, 2005.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1976.

## 5. 논문

강봉원, 「서구 고고학의 패러다임(paradigm) 변화와 한국 고고학의 방향」 『韓國上古史學報』 第34號, 韓國上古史學會, 2001.  
 姜鍾元, 「鎬山 栢嶺山城 出土 銘文瓦 檢討」 『百濟研究』 第39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00.  
 高敬姬, 『新羅 月池 出土 在銘 遺物에 對한 銘文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3.  
 구문희, 「武珍古城 出土 銘文資料와 新羅統一期 武州」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河炫綱教授定年紀念論叢, 2000.  
 金炳熙, 『安城 奉業寺址 出土 高麗前期 銘文기와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2001.  
 金誠龜, 「多慶瓦窯址出土 新羅瓦磚小考」 『美術資料』 第33號, 國立中央博物館, 1983.  
 김원주, 「사적 15호 흥륜사지는 영묘사지의 잘못」 『天古』 51, 신라문화동인회, 1983.  
 김유식, 「7~8세기 新羅 기와의 需給」 『기와를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 삼국의 대외교섭』, 2000.  
 金昌鎬, 「新羅 기와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 『講座 美術史』 15號,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0.  
 -----, 「慶州출토 朝鮮初 銘文瓦에 대하여」 『民族文化論叢』 第 23輯, 2001.  
 -----, 「경주에서 출토된 後三國 기와의 역사적 의미」 『慶州文化』 第7號, 慶州文化院, 2001.  
 -----, 「後三國時代의 기와에 나타난 麗·濟의 地名」 『韓國中世史의 諸問題』, 2001.  
 -----, 「신라시대 영묘사의 복원 시론」 『淸溪史學』 18, 淸溪史學會, 2003.  
 金鎬詳 裴敏洙, 『慶州地域 埋藏文化財 調査 研究 I』, 2005.  
 朴方龍, 『新羅 都城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8.  
 朴龍雲, 「고려전기 慶州의 위상에 대한 고찰」 『慶州史學』 第 16輯, 慶州四學會, 1997.  
 朴銀卿, 「高麗瓦當文樣의 編年研究」, 『考古歷史學志』 4, 東亞大學校博物館, 1988.  
 朴洪國, 「慶州地方에서 出土된 文字銘瓦」 『全國大學生學術研究發表論文集』, 高麗大學校學徒護國, 1980.  
 -----, 「三國末~統一初期 新羅瓦磚에 대한 一考察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그 出土瓦磚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6.  
 -----,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出土瓦窯에 대한 考察」 『嶺南考古學』 5, 嶺南考古學會, 1988.  
 -----, 「와전자료를 통한 영묘사지와 흥륜사의 위치 비정」 『新羅文化』 第20輯, 2002.  
 -----, 「경주 안계사지와 포항 연화사지의 銘文瓦」 『新羅學研究』 第3집, 위덕대학교부설신라학연구소, 1999.  
 徐五善, 『韓國平瓦文樣의 時代的 變遷에 對한 研究』, 忠南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85.  
 심상욱, 「백제 印刻瓦의 출현과 변천과정 검토」 『百濟文化研究』 第34輯,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2005.  
 오영훈, 『신라왕경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석사학위청구논문, 1988.  
 尹龍熙, 『南漢江流域 出土 高麗前期 平기와 考察 - 驪州 元香寺址 出土기와의 分析을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2001.  
 윤창미, 「경주남산 출토 명문와」 『慶研考古』 第4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이도학, 「抱川 半月山城 出土 ‘고구려 기와’ 銘文의 再檢討」 『고구려 광개토태왕릉비문 연구』, 서경, 2006.  
 이병호, 「기와 조각에서 찾아낸 백제문화, 인간와」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2004.  
 李仁淑, 『統一新羅~朝鮮前期 平기와 製作技法의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2004.  
 李鍾玟, 『韓國의 初期青磁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請求論文, 2002.  
 정용범, 「고려시대 사원의 상업활동」 『釜大史學』 第 16輯, 慶州四學會, 2006.  
 趙成允, 『慶州 出土 新羅 平기와의 編年 試案』, 慶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2000.  
 -----, 「新羅 出土 中板 打捺紋樣 平기와의 製作時期와 그 意味」 『佛教考古學』 第2號, 威德大學校博物館,

- 2002.
- , 「新羅 長板 打捺紋樣 평기와의 慶州 製作與否에 대하여」 『梨花史學研究』 第30輯, 梨花史學研究所, 2003.
- , 「新羅 瓦로 본 雁鴨池 築造에 대하여」 『佛教考古學』 第6號, 威德大學校博物館, 2006.
- 차순철, 「경주지역 평기와 수급관계에 대한 일고찰 -석장사지 출토 평기와를 중심으로-」 『新羅學研究』, 위덕대학교부설신라학연구소, 2000.
- 차순철, 「官 字銘 銘文瓦의 使用處 檢討」 『慶州文化研究』 第5輯, 慶州大學校文化財研究所, 2003.
- 清水信行, 「開泰寺址 出土 銘文瓦에 대한 一考察」, 『百濟研究』 第28輯,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1998.
- 최맹식, 「평기와 研究의 最近動向」, 『百濟研究』 第34輯, 2001.
- , 「부소산성의 기와」, 『扶蘇山城』, 부여군, 2005.
- 崔英姬, 『江原地方 高麗時代 평기와에 관한 研究』, 檀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3.
- 崔장미, 車順喆, 「2006년도 사천왕사지 발굴조사의 성과와 의의」 『新羅史學報』 8, 新羅史學會, 2006.
- 崔晶惠, 『高麗時代 평기와의 編年研究 -文樣形態를 中心으로-』, 慶星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 崔兌先, 『平瓦製作法의 變遷에 대한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3.
- 黃尙周, 『慶州地域 新羅寺址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2001.

## 6. 국외논문-일본어

- 高正龍, 「軒瓦の現れた文字 -朝鮮時代銘文瓦の系譜-」 『古代文化』 18, 古代學協會, 2004.
- 龜田修一, 「扶余“大唐”銘軒丸瓦の語るもの」 『古代文化』 18, 古代學協會, 2004.
- 吉井秀夫, 「新羅の文字瓦-光州廣域市武珍古誠採集瓦を中心として-」 『朝鮮の古瓦を考える』, 帝塚山考古學研究所, 1996.
- , 「扶蘇山城出土“會昌七年”銘文字瓦のめぐって」 『古代文化』 11, 古代學協會, 2004.
- , 「百濟滅亡後の夫餘地域の瓦 -百濟寺院のその後」 『日韓古代瓦の研究』, 吉川弘文館, 2004.
- 東朝 田中俊明, 『韓國の古代遺跡--新羅編』, 中央公論社, 1988.
- 濱田耕作, 梅原末治, 『新羅古瓦の研究』 京都帝國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報告 第十三冊, 京都帝國大學, 1934.
- 上原真人, 「十一 十二世紀瓦當文様の源流(上, 下)」 『古代文化』 32-5 6, 1980.
- 李タウン, 「百濟五部名刻印瓦について」 『古文化談叢』 第43集, 1999.
- 竹谷俊夫, 「慶州出土の銘文瓦二種」 『天理參考館報』 第18, 天理大學出版部, 2005.
- 田中俊明, 「慶州新羅廢寺考(1)」 『堺女子短期大學紀要』 23號, 堺女子短期大學, 1988.
- , 「廣州船里出土文字瓦銘文の解釋と意義」 『古代文化』 18, 古代學協會, 2006.
- 井內古文化研究室, 『朝鮮瓦磚圖譜』 IV 新羅2, 1977.
- 井內古文化研究室, 『朝鮮瓦磚圖譜』 VII 總說, 1977.

*A study on temple name stamped roof-tiles  
between the end of United Shilla and the earlier  
Go-ryeo in Gyeong-ju*

Yoo, Hwan - Sung

*Department of Resource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 Ho)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period between the end of United Shilla and the earlier Go-ryeo, on the space boundary of Gyeong-ju which is an administrative district in the present. The objects of study are 27 individual pieces of roof-tiles stamped temple name in 24 types. These temple named roof-tiles were studied by research reports, picture books and observations.

First of all, temple name stamped roof-tiles were introduced one by one in high frequency and classified into 4 types based on characteristic of stamping. Then these tiles were researched in the existing proposals of production date by the standards of stamping(way, structure and meaning of stamp) and the standards of specifics( length of beating plate, beating pattern, shape and cross section shape of male-roof-tile) in the each of 4 types and inferred the production dates through the related roof-tile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emple name stamped roof-tiles had been produced from the middle of 9C in Gyeong-ju and in this period these tiles had both of medium beating plate(stamp) and long beating plate(stamp).

Second, temple name stamped roof-tiles which were seperated beating plate(stamp) and name stamp had been produced between the middle of 9C and the earlier of 10C mainly.

Third, heading toward Go-ryeo dynasty, temple name stamped roof-tiles which were united beating plate(stamp) and name stamp had been produced.

Fourth, heading toward Go-ryeo dynasty, temple name stamped roof-tiles had produced more and stamped not only temple name but also other letters.

Fifth, beating plate(stamp) patterns had been changed from single to complex but slowly.

Sixth, temple name stamped male roof-tiles had edges on their back to earlier of 10C, but after that time they didn't.

Through this result, temple name stamped roof-tiles of Gyeong-ju had changed gradually. This change was caused from technical influence of Go-ryeo dynasty on technical foundation of United Shilla. The background of this change was on increase of demanding roof-tiles to build or repair government offices and temples according to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on in Gyeong-ju.